

16일 Market Index			
↑ 코스피	6717.97	↑ 코스닥	815.98
	(+90.71)		(+3.57)
↓ 금리 (미국 9년)	4.053	↑ 환율 (원-달러)	1366.60
	(-0.038)		(+7.20)

하이닉스, 美 첫 메모리 생산 추진... 합작 법인도

인텔 오하이오 공장 임대할 듯
SK하이닉스 미국 첫 전공정 거점
첨단 D램·HBM 이전 절차 변수
정부 국가핵심기술 심사 받아야

SK하이닉스가 인텔과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인디애나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에 이어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넓힐지 주목된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인텔이 오하이오주 뉴앨버니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이곳에서 메모리 웨이퍼를 직접 생산할 경우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전공정 거점이 된다.

SK하이닉스와 인텔에 주요 클라우드 업체까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논의는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추진 중인 HBM 후공정 투자와도 맞닿아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파예트에서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HBM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을 착공했으며 2029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디애나 공장은 한국에서 생산한 D램 웨이퍼를 가져와 적층·조립하는 시설이다. 오하이오에서 D램을 생산하게 되면 웨이퍼 제조부터 인디애나의 HBM 패키징까지 미국 내에서 두 공정을 잇는 생



메트로경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성료

국내 물류·모빌리티 리더들이 인공지능전환(AX)과 녹색전환(GX)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의 운송효율 확대에 대한 포럼을 가졌다. 메트로미디어는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인공지능전환(AX)과 녹색전환(GX)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를 주제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했다.

국내 물류·모빌리티 리더들이 인공지능전환(AX)과 녹색전환(GX)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의 운송효율 확대에 대한 포럼을 가졌다. 메트로미디어는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인공지능전환(AX)과 녹색전환(GX)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를 주제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

산망을 구축할 수 있다. 다만 두 공장의 연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사가 이번 협력을 검토하는 배경도 뚜렷하다. 인텔은 오하이오에 280억달러(약 38조7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개 팹을 건설하고 있지만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첫 번째 공장은 현재 2030~2031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 SK하이닉스와 협력하면 공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새 공장을 짓는 대신

인텔 시설을 활용하면 투자 부담과 건설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협상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협상은 초기 단계로 구체적 생산 방식과 제품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기술 이전 절차도 변수다. 첨단 D램이나 HBM 관련 기술을 국외 생산시설에 적용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미

국 생산 여부는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심사가 필요하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로이터에 “메모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 생산 거점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결정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seoul.co.kr



metro

애플·미디어텍·퀄컴 차세대 AP 잇단 공개 삼성, 엑시노스로 반격

애플과 미디어텍이 2나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잇달아 공개했다. 퀄컴도 이달 하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점유율 반등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9일(현지시간) 아이폰용 AP 가운데 처음으로 2나노 공정을 적용한 ‘A20 프로’를 공개했다.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와 첫 폴더블폰인 아이폰 듀오에 탑재된 A20 프로는 전작보다 CPU 성능이 최대 20%, GPU 성능은 최대 40% 향상됐다. AI 연산 성능을 2배로 높이고 아이폰18 프로의 배터리를 3배 확대해 발열 관리 성능을 강화했다.

미디어텍도 지난 15일(현지시간) TSMC 2나노 공정을 적용한 ‘디멘시티 9600 프로’를 공개했다. 퀄컴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스냅드래곤 서밋 2026’에서 차세대 플래그십 AP를 선보인다. 제조 공정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TSMC의 2나노 계열 공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성전자, 모바일 AP 글로벌 점유율 작년 4분기 5%→올해 2분기 9%로 연초 출시된 갤럭시 S26 탑재 영향

삼성전자도 엑시노스 2600을 앞세워 모바일 AP 시장에서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엑시노스의 글로벌 모바일 AP 출하량 기준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5%에서 올해 1분기 7%, 2분기 9%로 상승했다.

엑시노스 2600이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된 영향이 컸다. 중급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1680과 1480의 출하 증가도 점유율 상승에 힘을 보탰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2분기 엑시노스 출하량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엑시노스 2600은 삼성 파운드리 2나노 게이트올라라운드(GAA) 공정으로 생산된다. CPU 연산 성능은 전작보다 최대 39%, 생성형 AI 성능은 113%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발열을 외부로 빠르게 내보내는 ‘히트 패스 블록’ 기술도 적용했다.

차기 제품인 엑시노스 2700은 삼성 파운드리의 2세대 2나노 공정인 ‘SF2P’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출시될 갤럭시 S27 시리즈의 엑시노스 탑재 비중이 전작보다 늘어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엑시노스 2700은 삼성전자 내부 평가에서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보다 일부 성능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etro



metro

정규직 월급 400만원 시대... 비정규직은 절반 그쳐

데이터처, 300만원 넘어선지 8년 만
올해 평균월급 399만8464원 예상
비정규직 작년 월급 208만원 수준
이르면 올해 정규직의 50% 하회 공산

올해 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이 월 400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018년 300만 원대에 올라선 뒤 8년 만이다. 반면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관측이 현실화하는 건 단지 시간 문제다. 둘 다 국내 역대 최초의 사례가 된다.

16일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389만6000원을 임금으로 받았다. 이는 전년도인 2024년의 379만6000원과 비교해 2.63% 늘어난 수치다.

올해도 작년과 상승률이 같다고 가정하면 2026년도 임금은 2025년 대비 10만2464원 오른다. 이 경우 399만8464원이 되는데 작년 폭보다 약간 된 3%만 상승해도 400 선을 넘긴다. 앞선 2024년도 임금은 2023년 대비 4.78% 오른 바 있다.

정규직 평균임금은 2007년(200만7000원)에 200만 원을 처음 갠 이후 5~6년마다 약 50만 원씩 증가했다. 2012년(255만1000원)에 250만, 2018년(300만9000원)에 300만, 2023년(362만3000원)에 350만 선에 도달했다.

이 50만 원 단위의 증가 주기는 짧아졌다. 2023년에 350만 대에 들어섰는데 이미 2025년(389만6000원)에 400만에 근접한 상황. 2026년 또는 2027년(3 내지 4년 내)에 50만 원 더 늘어나게 된다.

정규직이란 정년이 보장되는 상용근로자를 뜻한다. 여기에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임원의 경우, 승진을 해 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될 시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정규직 임금은 꾸준한 흐름세를 보여 왔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상승 속도는 매우 더디다.

지난해 비정규직 임금은 208만8000원으로 정규직이 받는 수준의 53.6%에 그쳤다. 이르면 올해나 내년, 늦어도 후년까지 정규직의 50%를 하회할 공산이 크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첫 사례로 기록되는 것.

2025년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80만8000원이었다. 액수 차

는 2024년 174만8000원, 2023년 166만6000원이었다. 정규직이 아닌 탓에 매달 200만 원이나 덜 받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비정규직은 시간제근로자·한시적근로자 등을 가리킨다. 아들에 대한 사회보장 처우 역시 정규직에 크게 뒤진다. 작년 기준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각각 87.9%, 95.0%를 기록한 데 반해 비정규직은 37.1%, 53.2%에 그쳤다. 퇴직급여 가입률도 ‘정규 95.6% 대 비정규 46.0%’였다.

데이터처는 다음 달 중순순경 정규직·비정규직의 올해보 월평균 임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둘을 합한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기준 320만5000원이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 ▲조정식 의장, 카자흐 대통령과 회담…“전략동반자 관계 격상 환영”
/사진 뉴시스
- ▲장동혁 “김승원 청문회는 ‘삼류 배우’의 저질 신파극…임명 안 돼”

- ▲김민석 “진보·보수 전방위 대통합 시동…4통합 등 당내 생각 모을 것”
- ▲이광재 “민주당 다수당일 때 청문회법 바꿔야”
…도덕성 검증 비공개 방안 거론

- ▲김종인 “조국·추미애, 다른 생각…李 지지율 하락 원인 냉정히 판단해야”
- ▲산입부, 17일 대미투자 국회 보고 연기요청…18일 MOU도 무산

완성차업계, AI·SW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인재 확보 분주

현대차그룹 HMG 테크 탠트 포럼
호세 무뇨스 사장 등 경영진 총출동

벤츠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 체질 전환
BMW 주행경험 전반 새롭게 재편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문 인력 확보에 분주하다. 대상은 과거 자동차공학 중심에서 최근에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데이터 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자율주행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AI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인재 확보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오는 17~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현대차그룹은 17~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HMG 테크 탠트 포럼'을 열고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선다. /현대차그룹

서 'HMG 테크 탠트 포럼'을 열고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는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박민우 첨단차플랫폼본부(AVP)장 사장, 만프레드 하리 연구개발(R&D)본부장 사장 등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SW)·하드

웨어(HW) 분야 최고 책임자들이 총출동한다.

현대차는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규모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4일까지 하반기 채용을 진행했으며 SDV, 로봇틱스, AI 반도체 등 피

지컬 AI 신사업 분야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자동차 본고장 독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으로 체질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차량의 하드웨어 경쟁력에 더해 자체 운영체제(OS)와 AI, 자율주행 기술을 미래 경쟁력으로 삼으면서 관련 인재 확보와 기술 내재화에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핵심은 자체 개발한 차량용 운영체제 'MB.OS'다. 메르세데스-벤츠는 MB.OS 구현을 위해 신규 채용과 기존 인력 전환 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3000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BMW는 '노이어 클라쎄'를 통해 차량의 전자·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주행 경험 전반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인포테인먼트와 자율주행, 주행성능, 차량 기본

기능을 담당하는 4개의 고성능 컴퓨터를 '슈퍼브레인'으로 통합했다. 기존 세대 대비 연산능력을 20배 이상 높이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분리해 차량 출시 이후에도 소프트웨어를 지속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했다. BMW는 미국·독일·중국·이스라엘·한국·싱가포르 등 주요 기술 거점에 기술 조직을 두고 있고, 글로벌 IT·소프트웨어 허브에서 AI와 차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각 허브에 AI 개발팀을 두고 자체 AI 기술 개발도 확대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브랜드의 전략은 인재 확보와 함께 자체 SW 조직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엔비디아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LG U+, '일상비일상의틈' 재단장... "예술과 고객 연결"

홍범식 대표, 프리뷰 행사 직접 행거
데이터 기반 고객 참여형 플랫폼 육성

LG유플러스가 문화예술복합공간 '일상비일상의틈'을 재단장해 선보인다. 2020년 개관 이후 6년간 축적한 운영 데이터를 통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축적해 나가는 고객 참여형 플랫폼으로 성장시킨다는 구상을 밝혔다.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준형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상무)은 "가장 인간다운 창의성과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예술"이라며 "LG유플러스의 '심플리' 가치를 예술을 통해 이어나갈 것"이라고



지난 14일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운데 오른쪽)와 예릭 오 작가(가운데 왼쪽)를 비롯한 초청 관람객들이 '고객 프리뷰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대표 브랜드 철학 '심플리 유플러스'를 발표하고 기술로 고객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일상비일상의틈'은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연결'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실현한 대표 사례다.

통신기업이 문화예술 후원에 적극적인

로 나서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물린다. 독일 도이체텔레콤은 2024년부터 자국의 현대미술관과 동유럽의 젊은 작가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스페인 텔레포니카는 2012년부터 마드리드 중심부에서 현대미술 전시관을 운영 중이다.

일상비일상의틈은 팝업 문화 열풍 속에서 이어오던 공간 주제를 현대 미술 전시와 신진 작가 육성으로 탈바꿈한다. 지향점은 작가의 창작 및 성장 과정이 담긴 최종 작품을 고객 경험까지 확장하는 문화 예술 플랫폼이다.

공간의 주된 콘셉트는 '아트 개러지'다. 완성된 작품을 걸어놓는 아트 갤러리와 차별화된 개념으로, 차고(車庫)처럼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창작하며 작품을 완성해가는 공간을 상징한다.

AI 기술은 전시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람객 개개인에 맞는 전시 설명을 구현하는 'AI 아트 메이트'에서 방문객은 전시 초입에 배치된 키오스크에서 4단계 질문에 답하고, 개인의 취향이 담긴 카드를 받는다. 이후 전시 설명에 카드를 태그하면 데이터로 기록되고 전시를 마친 후 관람 스타일을 정리한 '아트 리포트'를 받아 볼 수 있다.

일상비일상의틈은 신진 작가를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K-아트 인큐베이터로 거듭날 전망이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의 관심도 각별하다. 홍 대표는 지난 14일 열린 프리뷰 행사에도 참석해 창작자들을 맞이하고 소규모 전시를 관람했다.

/조민선 기자 msjo@



metro

풍요로운 한가위, 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제10대 의원 일동

따뜻한 정과 행복이 가득한
추석 보내십시오.

美 국채 금리 5% 뚫었다… 대출·회사채까지 ‘고금리 압박’

美 10년물 19년 만에 최고 수준
고유가·물가압력에 건축 경제 확산
日·유럽 장기채도 수십년래 최고
韓 장단기 국고채 가파른 오름세
기업 자금조달·차환 부담도 커져
가계 이자 늘고 증시엔 하락 압력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5%대를 찍고, 일본 국채 10년 금리도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주요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다. 유럽 국가들에서도 국채 금리가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한국 역시 국고채 1년물부터 10년물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잇고 있다. 국가 부채가 불어나고 국제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더 올라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고채 금리가 뛰면 가계 대출 금리가 오르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국내 주식시장에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배 풀린 국채 금리

15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이날 오전 5.041%까지 올라, 2007년 7월 이후 최고 수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서는 등 국내외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준을 기록했다. 2007년 이후 약 1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30년물 국채금리 역시 장중 5.401%까지 치솟았다. 2007년 6월 이후 최고치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4.65%를 웃돌았다. 미 재무부가 15일 진행한 130억 달러 규모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도 낙찰 금리는 연 5.420%로, 2020년 해당 만기 국채가 재도입된 이후 가장 높았다.

이번 금리 급등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그리고 채권 공급 과잉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8.75

달러(15일)까지 치솟는 등 중동 분쟁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 대비 3.4% 상승하며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구조적 수급 불균형도 한몫했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섰고 재정적자를 매우려 대규모 국채를 찍어내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마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설비 투자를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국채 시장 규모는 2007년 약 4조5000억달러에

서 현재 32조달러로 불어났다. 시장 유동성을 정부와 AI 기업이 동시에 흡수하면서 채권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보상)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올해 미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설 것이란 예측을 내놔던 스티븐 배로우 스탠다드은행 G10 전략 총괄은 블룸버그에 “우리는 ‘장기 고금리(higher-for-longer)’체제에 진입해 있다”고 진단했다. 자크 그리피스 크레디트사이츠 거시전략가는 “10년물 금리가 5.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주요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9월 들어 연 3%를 넘어섰다.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치다. 유럽 주요국 국채도 뛰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은택 KB증권 리서치본부 전략총괄 이사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5% 초반을 추세적으로 돌파할 경우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기업 자금조달 부담 우려

한국 장기 국고채 금리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이날 오후 마감 기준 전 거래일 대비 3.7bp 하락한 연 4.692%를 나타냈다. 50년 국고채도 연 4.634%에 마감했다. 10년

물 금리는 연 4.547%로 5.3bp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5.7bp, 2.7bp 하락해 연 4.288%, 3.978%에 마감했다. 3년물 금리는 연 4.053%로 전 거래일 대비 3.8bp 하락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서 대출 금리도 덩달아 뛰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회사채 발행 금리도 상승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iM증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회사채 3년물 금리는 신용등급별로 AAA 4.49%, AA+ 4.59%, AA 0 4.63%, AA- 4.69%, A+ 5.07%, A 0 5.34%, A- 5.80%, BBB+ 8.06%로 집계됐다. 특히 AA-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A급 회사채는 3년물 금리가 일제히 5%를 웃돌고 있다.

재계와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1년 내 깊어야 할 회사채 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다. 이어 SK(8조8688억원), 롯데(5조8510억원), 삼성(5조1000억원), LG(3조8650억원) 순으로 만기 도래분이 많다.

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장기 투자 부담이 커졌고, 국내 주식시장 상승 폭도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한은 6대1 금리인상… 10월 추가인상은 ‘신중’

동결 의견도 성장·물가압력엔 공감
쟁점은 물가 상승세 지속 여부
9월 물가·가계부채가 핵심 변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8월 기준 금리 인상 표결은 6대 1이었지만 정책 진단의 간극은 숫자 만큼 크지 않았다. 유일한 동결 의견도 강한 성장과 당장의 수요측 물가압력을 인정했다. 다만 이를 기초적인 물가 상승으로 확신해 즉시 대응할 지를 놓고 판단이 갈렸다.

인상 의견을 낸 위원 대부분이 다음 인상에는 조건을 붙였다는 점도 확인됐다. 6대 1은 8월 금리인상에 대한 강한 합의였지만 10월 추가 인상까지 예고한 표결은 아니었다.

◆성장·물가 진단 겹쳐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올렸다. 7월에 이은 두 차례 연속 인상이다. 황건일 금통위원은 금리를 2.75%로 유지해야 한다고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당시 기자회견회에서 황 위원의 소수의견을 “전반적인 공감대 안에서의 단순한 전술적인 차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8월 인상과 10월 인상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금통위는 조기 대응으로 정책 비용을 줄이는 쪽을 택했다는 것.

지난 15일 공개된 의사록은 이 같은 설명을 상당 부분 뒷받침했다. 황 위원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국내 성장률이 종전 전망과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내수 개선에 따른 수요 측 압력으로 당분간 높은 물가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경기와 물가의 방향 자체를 다수 위원과 다르게 본 것은 아니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판단이 갈린 지점은 물가압력의 지속성이었다. 인상 의견을 낸 위원들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3.3%, 2.9%로 잠재수준을 웃돌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내년까지만 2.5%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 서비스와 내구재 등으로 물가 상승이 확산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고착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황 위원은 물가가 4분기부터 점차 둔화할 가능성과 원화의 상당 폭 절상을 주목했다. 높은 시장금리와 주가 조정으로 금융여건의 완화 정도가 줄었고, 주요국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을 뿐 실제 조정에는 신중하다는 점을 동결 근거로 제시했다.

인상파가 대응이 늦어져 물가와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위험을 더 크게 봤다면 황 위원은 물가의 지속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 인상할 때 발생할 비용에 무게를 둔 것이다.

황 위원은 “수요측 압력에 의한 물가오름세가 기초적일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하

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월 인상 기정사실 아냐

의사록에 별도로 공개된 다섯 건의 인상 의견 가운데 네 건도 추가 인상을 자동 경로로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인상이 물가·성장·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근원물가, 경기, 가계부채 상황 등을 확인한 뒤 추가 인상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됐다.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점검하면서 긴축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경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도 8월 기자회견담회에서 “앞으로 있을 회의는 다 라이브”라며 두 차례 연속 인상이 경제주체에 미치는 여파를 점검해야 한다는 데 금통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리 경로는 6대 1이라는 표결 숫자보다 새로 나오는 지표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3.4%로 높아졌다. 다만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전체 물가를 0.58%p 끌어 올린 만큼 해당 수치만으로 수요발 물가의 고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기저효과가 정상화되는 9월 물가와 개인서비스 흐름, 두 차례 인상의 파급효과가 다음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일본은행의 이날 정책 결정과 원화 흐름도 황 위원이 제기한 ‘확인 필요성’을 검증할 변수다. 다음 금통위는 오는 10월 22일 열린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李 “한·중앙아, 전략적 관계로 진화해야”

李 대통령, 첫 중앙亞 다자 정상회의
5개국 정상 ‘서울선언’ 공동 채택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16일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서울선언은 ▲한·중앙아시아 간 파트너십의 제도와 ▲평화와 안정을 향한 동행 ▲혁신과 번영을 향한 미래 ▲사람과 신뢰를 통한 연결이라는 양 지역 간 4대 협력 비전 담겨 있다.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다자 정상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중앙아 협력 방향 및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한·중앙아시아 협력은 개별 현안 대응을 넘어 중장기 미래과제를 함께 준비하는 전략적 관계로 진화해야 한다”면서 “향후 협력 방향과 장기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을 공동의 이정표로 삼아 새로운 협력 과제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자”고 ‘서울선언’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정례화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세계 정세를 두고 ‘경제안보’ 대전환의 시대라고 규정하며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

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90여년 전, 우리의 고려인 동포들은 중앙아시아에 뿌리내리며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시작했다”며 “오랜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교역과 투자, 산업과 인프라, 교육과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과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30여년 간 쌓아온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의 새로운 30년을 함께 준비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분회의에서 “이여 글로벌 안보·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뛰어난 제조업 역량을 갖추고 시장과 공급망을 다 변화해야 하는 한국과 풍부한 자원과 성장하는 시장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중앙아시아 각국이 추진 중인 제조업 확대 등 산업고도화 정책과 우리의 제조·기술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폐열로 온수 데우고, 파력으로 수소 생산… ‘탄소중립’ 속도

제주 히트펌프 실증현장

삼성전자 ‘EHS 올인원’ 시스템
실외기 하나로 냉·난방 한 번에
344억 투입 2460 가구 보급 추진

오라동 ‘두산윈드파워센터’부터
차귀도 파력 그린수소 생산까지

“에어컨을 가동하면 발생하는 폐열이 지하 하이드로 유닛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버려지던 열로 온수 탱크 속 물을 데우는 거죠.”

지난 14일 찾은 제주시 도남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설비실. 200L 용량의 대형 온수 탱크 옆에서 표준재 삼성전자가 생활가전부 개발팀 프로그가 시스템의 핵심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표 프르는 “에어컨을 트는 순간 지하 온수통에 뜨거운 물이 차기 시작한다”며 “버려지던 열을 재활용해 공짜로 온수를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은 삼성전자가 지난 6월 구축한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EHS 올인원’의 실거주형 필드 테스트 랩이다.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는 ‘난방 전기화’의 핵심 축인 히트펌프 기술이 제주에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히트펌프는 열회수(Heat Recovery) 원리로 작동된다. 여름철 에어컨 냉방을 가동할 때 실외기를 통해 버려지던 폐열을 흡수해 물을 데워 추가 에너지 소비 없이 급탕(온수)을 해결한다.

삼성전자의 ‘EHS 올인원’은 하나의 실외기로 공기를 직접 냉방하는 에어투에어(Air to Air) 방식과 물을 데워 바닥 난방 및 온수에 활용하는 에어투워터(Air to Water) 방식을 통합한 차세대 주거용 솔루션이다.



삼성전자 표준재 생활가전부 개발팀 프로그가 지난 14일 제주시 도남동 한 주택에 설치된 삼성전자 일체형 히트펌프 실외기와 실내기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한용수기자·기후부출입기자단 공동취재사진

연이다.

실제 이곳에 거주 중인 양창희 씨는 “냉방과 난방, 온수 공급을 위해 각각 별도의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며 “올여름 냉방도 만족스럽게 사용했다”고 전했다.

경제성과 기술적 완성도 역시 눈길을 끈다. 기존 시스템 에어컨과 히트펌프 보일러를 별도로 설치하려면 약 2300만 원이 들지만, 올인원 제품을 적용하면 2000만 원으로 약 300만 원의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여름철 전력 소비량도 20% 가량 줄어든다.

삼성전자의 냉매 압축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은 35℃ 출수 조건에서 계절성에너지소비율(SCOP) 4.9를 기록해, 정부 가이드라인(4.5)을 웃도는 고효율을 입증했다. 독자적인 톱날형 팬 구조를 적용해 최저 35dB의 저소음을 구현했으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R32 냉매와 비상용 차단 밸브

를 탑재해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제주도는 총사업비 344억4000만 원을 투입해 단독·연립주택 2460가구에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추진 중이다.

주거 부문의 히트펌프 실증뿐만 아니라, 제주 전역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고리들이 유기적으로 실증되고 있다.

제주시 오라동 ‘두산윈드파워센터(WP C)’의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제주 37기(159.5MW)를 포함해 전국 11개 사업장에 흩어진 풍력발전기 80기의 운전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한 기당 300개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이 관제장은 자체 개발한 ‘윈드링크’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이상 징후를 선제 진단한다. 정비시간 단축과 가동률 보증을 목표로 AI 기반 예지보전 기술을 적극 활용 중이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일대에서는 파도를 이용해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는 ‘해상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다. 고산항에서 배를 타고 차귀도 인근으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일대에서는 파도를 이용해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는 ‘해상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다. /한용수기자·기후부출입기자단 공동취재사진

나가자 바다 한가운데 1만톤 규모 콘크리트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국내 최초로 파력과 풍력을 연계한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을 실증하는 파력시험장이다. 내부에는 100kW급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가 탑재돼 파도와 풍력 전력으로 바닷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한다. 무인 해상 환경에서 육상 관제실 원격 제어만으로 누적 720시간 이상 수소를 생산 중이다.

김경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만바다로 갈수록 전력망 연결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해상에서 수소를 생산해 선박이나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하는 방식이 경제적”이라며 “300kW급 부유식 해양그린수소 시스템 개발 등 MW급 대형화를 목표로 기술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수소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모든 과정을 해상에서 원격으로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후속사업으로 300kW급 부유식 해양그린수소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2031년까지 부유식 생산 기술을 검증한 뒤 장기적으로 MW급까지 규모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주 분산에너지와 난방 전기화 등 대한민국이 앞으로 맞이할 10년의 모습을 미리 실증하고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라며 “히트펌프와 같은 친환경 수요자원 보급을 확대해 2035 탄소중립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히트펌프의 전력 소비 특성에 맞춘 전용 요금제 신설과 친환경 설비 보급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실증에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기후경제 생태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충분하다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 규제 완화엔 ‘신중’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용산공원 활용, 서울시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우선 의견
부동산 정책, 예측·일관성 ‘강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강조한 가운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약자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건설국장과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

해 12월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된 이후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낙점됐다.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의 경우 지자체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했다.

그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다”라며 “공원화라는 기본 개념 위에 부수적으로 외곽 지역에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와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그 정책의 효과가 지속된다”며 “아직은 마려한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과 관련해

서 그는 “서울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전세제도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기 전 다섯 차례 전세를 옮기며 거주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는 비정상적인 사금융”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후보자가 비정상이나, 아니면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비정상이나”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30년 공직 생활 중 약 20년 동안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아왔다. 어떻게 보면 전세로 살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세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 배상’ 불수용

피해자, 공동소송 추진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공동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

다”며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인 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보상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 50명

은 지난해 12월 쿠팡을 상대로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 7월 쿠팡에 신청인 1인당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KT 네트워크 기술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연결합니다

화려한 불꽃이 번지는 서울 밤하늘
많은 사람이 모인 만큼 안전이 더욱 중요한 순간,
그 곳에 KT가 있습니다.

하나의 네트워크를 분할해
독립적인 가상 통신망을 제공하는
KT의 '5G SA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로

100만여 명의 인파 속에서도
현장의 안전요원들은 긴급 통신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무선 CCTV 영상까지 끊김 없이 확인합니다.

안전이 필요한 곳
KT 네트워크 기술이 함께합니다.

KT는 '26년 9월 5일 서울 세계 불꽃 축제에서 '5G SA(Standalone)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로 무선 CCTV 및 긴급 통신 단말 전용망을 구현했습니다.

사진 제공: (주)한화

AX Platform Company **kt**

메가특구특별법 이달 내 발의 시동… 노동특례 ‘최대 변수’

특구에 7개 분야 패키지 지원 법안 화이트칼라 이그젼션 등 논의 전망 사회적 대화 전후 발의 여부 미결정

정부·여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별법에 담긴 ‘노동 특례’ 조항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이후 특별법 발의 시점과 연내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메가특구법은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로, 권역별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산업인프라 등 7개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가운데 노동특례 조항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데 ▲화이트칼라 이그젼션(관리직과 연구·개발직 대상 노동시간 규제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 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제조업 파견 확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경쟁국들이 노동유연성 확보와 국가적 자금 지원을 동시에 앞세워 자국 기업의 경쟁

경영계 주장	주요쟁점	노동계 주장
해외 경쟁국은 근로시간, 고용형태 규제 유연화로 기업 인력운용 자유도 폭넓게 보장	화이트칼라 이그젼션 관리직과 연구·개발직 대상 노동시간 규제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 면제	실질적인 무제한 노동 가능성 노동자 건강권 침해
현행제도로는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 시 대응 힘들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정산기간 대폭 확대 특정기간 집중 장시간 노동 허용	주52시간 제도 취지 훼손 노동자 건강권 훼손 우려
프로젝트 전체 주기에 맞춰 숙련된 인력 안정적 운용 환경 조성 필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	비정규직 장기화 및 고용불안 심화
산업 경쟁력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필요	제조업 파견 확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 허용 검토	생산직의 구조적 비정규직화 우려

자료/ 경총·한국노총자료 취합

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은 경직된 노동법제 속에서 힘겨운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미국·일본 등 처럼 근로시간과 고용형태 규제를 유연화해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메가특구법 관련 제안을 발표하고 “반도체·AI(인공지능)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인 만큼, 노동법

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경쟁국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며 산업 경쟁력을 다져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반세기 전 제조업 시대에 설계된 노동법제에 여전히 묶여 있다”며 “현재의 경직된 노동법제로는 프로젝트에 수년이 걸리는 반도체 클러스터도, 집중 몰입이 필요한 R&D(연구·개발) 조직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우며,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인재

를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화이트칼라 이그젼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경우 메가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밝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종사자 다수가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고용불안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제조업 파견 확대는 생산직의 구조적 비정규직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는 메가특구법 내 주4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적 대화 제안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참여 의사를 밝히며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대화 전제조건으로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요구했다며 이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

에 고용노동부가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낼 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과거 반도체 특별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주장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젼션’ 도입을 논의한 바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우회로를 만든다는 시민사회와 당 내부 비판에 직면해 이를 제외하고 입법한 바 있다.

당정이 당정협의를 고위당정협의 등을 통해 메가특구법의 연내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노사 간 사회적 대화 여부에 따라 특별법 발의 시점과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정부위원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가 9월 발의·연내 입법이라는 방향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메가특구법을 이번달 내에 발의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노동 특례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적용해 나갈 지는 이후 논의 사항이라서 대화 이후에 (법안 발의를) 할 것인지, 중간에라도 발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강신철 청문회… 통합엔 의지, 재산 의혹엔 사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

與, 국방개혁·정책 역량 집중 검증 野, 위장전입·재산 신고 누락 추궁

여야가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역량을 검증한 가운데, 여당은 사관학교 통합 추진 의지를 점검한 반면, 야당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강신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승리가 국방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국방의 정책이 되게 하겠다”며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한미동맹의 결속력 아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 과제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미래 전장에서 육해·공군의 영역이 중첩되는 만큼 통합형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강 후보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통합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지원해 준다면 의지를 갖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의지가 약간 애매하다”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육사 출신 선후배 등의 반대를 거론하며 이를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도 물었다.

강 후보자는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

다”면서도 “통합의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통합 기조를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나, 질문에는 “기본안에 대해서 들어다보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안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국방부에서 만든 안도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한 것인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의견을 듣고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강 후보자가 강원도 화천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긴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 장관은 50만 장병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장관 본인부터 자신의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특별공급 자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문제 삼으며 주소 이전 이유를 거듭 추궁했다. 그는 “강신철 거민(강신철+철거민)”이라고 들어봤는가. 특별분양은 (자기 집이 철거됐을 때)

거주지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다. 후보자는 강원도에 이미 주민등록지가 있다”며 “주민등록을 왜 옮겼냐고 물었는데 (서초구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주민등록을 옮긴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소지 관리를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사과했다”고 답했다.

장남의 상가 매입과 재산 신고 누락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약 1년 된 장남이 친척에게 거액을 빌려 상가를 매입했는데도 후보자 부부가 몰랐다는 해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서른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누락된 것은 제 불찰”이라며 “확인을 제대로 못 했다”고 답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김민석 “교섭단체 요건 15석으로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보세력 연대시 경쟁력 단일화 강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6일 진보 세력 연대를 위해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의석수 20석인 정당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TV의 코너 ‘민티07’에 출연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진보세력 연대 방안 중 하나로 소개하며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다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요



구해 온 것이다. 현재 20명인데 진보정당도 그렇고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보세력 연대 상대인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정수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의사일정 협의와

국회 조직 구성 참여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정받는 혜택을 받는다.

김 대표는 연대방안 중 하나로 소개한 합리적 선거제 개편을 두근 “현재 소선거구제의 준연동형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논의해야 된다”며 “결선 투표제도 대선은 기본이고 광역 단체장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 우선 대선까지 포함하고, ‘이긴 단일화’하고 ‘상생 단일화’여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지 문제를 선거 때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 관련해

거론했던 ‘경쟁력 단일화’ 주장도 고수했다. 그는 “합당하면 한 당 안에서 공천할 때 경선하는데, 다른 당끼리 단일화를 하면 제일 표 많이 나올 사람, 여론조사 1등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우리가 1등이면 그 (1등한) 사람에게 (후보 자격을) 주면 되고, 우리가 2·3등이면 2등한테 몰아줘서 1등 하게 만드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든 연대를 하든 대원칙은 경쟁력이다.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김승원 청문보고서 여야 ‘채택 기싸움’

민주, 한동훈 수사자료 입수 경위 공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전날(15일) 종료된 가운데,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검증 끝에 끝내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고, 추후 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검찰 내부 수사 자료와 당사자 간 녹취록을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의겸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16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묻는 질문에 “흔들림이 없었다. 청문회 전에 제가 모르는 새로운 팩트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고 청문회 예고편이 워낙 격렬하고 선정적이어서 본편은 조금 미묘했다”고 평가했다.

검찰 출신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관이 아니면 가질 수 없다고 보이는 기소 계획서와 문자 메시지, 음성 녹취 같은 검찰 캐비닛 정보 공개 경위에 대해 법무부에 수사와 조사를 강력 요구했다”며 “정치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흉한 수사 정보 흘리기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수사해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청문회는 끝났다. 이제 한동훈 의원의 차례”라며 “남에겐 해명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의 수사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왜 밝히지 않는지를 다시 물었다. 청문회가 끝난 이제는 그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를 답하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세상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건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일부이자 전부



24h open



happy hour 1+1

BAKERY



BOOK



50
37
km/h

↑ 13_m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차량 전면 유리를 투명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주행 정보 표시 및 이미지·동영상 등을 구현

HYUNDAI
MOBIS

美 집값 10개월째 하락… ‘공급부족’ 서울, 가격조정 제한적

글로벌 고금리와 주택시장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 5% 넘어
호가 1.3% 하락, 매물 3.6% 증가

서울시, 토허신청 감소 등 관망세
금리 인상, 대출규제 등 복합작용

글로벌 국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국내 주택시장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미국 발 시장금리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면 집을 사려는 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미국에서는 고금리 영향으로 주택 매물 호가가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하락했다. 국내에서도 늘어나는 금융비용이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미국 호가 10개월째 하락… 고금리에 매물 증가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10년 만기 국제금리가 5%를 넘어섰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채권 수급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국제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 금리를 끌어올려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최근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포함된 서울 동북부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강세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미친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지난 2월 평균 6.05%에서 8월 6.67%로 6개월 연속 올라 주택 매수자의 이자 부담을 더하고 있다.

높은 금리와 집값에 구매력이 약해지면서 매도자들은 이미 가격을 조정하는 모습이다. 미국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매물 호가 중위값은 전년보다 1.3% 하락했다.

10개월 연속 하락세다. 주택 크기를 고려한 스퀘어피트당 호가도 1.8% 낮아졌다.

8월 매물은 약 114만건으로 전년보다 3.6% 늘고, 가격을 낮춘 매물의 비중도 20.4%로 전월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매수자가 부담할 금융비용은 커지고 선택할 매물은 늘면서 매도자의 가격 조정 압력이 높아진 셈이다.

◆ 서울 거래 주춤해도 가격은 상승… 매수세 얼마나 버틸까

국내에서도 시장금리가 올라 주택 매수자와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올려 연 3.00%로 높였다. 지난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금리 인상이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에서는 거래 감소 신호부터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8월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감소했다. 서울시는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세계개편안의 입법 절차가 남아 있는 점도 관망세를 키운 요인으로 꼽았다.

허가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0.17% 올랐다. 강북권 10개 구는 0.61%, 한강벨트 7개 구는 0.52% 상승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0.34%, 서남권 4개 구는 0.99% 하락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은 가격이 조정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외곽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모습이 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

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05% 올라 7월(1.27%)보다 상승폭이 작아졌다. 강남구(-0.18%)와 서초구(-0.01%)가 하락한 반면 성북구(1.83%)와 노원구(1.77%)는 상승폭을 키웠다.

금리 상승에 따른 집값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 공급 부족 우려와 전·월세가격 상승이 매수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어서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일부 가계의 소득 개선도 이자 부담을 상쇄할 변수다.

합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대출잔액 5억원에 적용되는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원금이 일정하다는 단순 계산상 연간 이자가 125만원, 월평균 약 10만4000원 늘어난다”며 “금리 상승이 누적될수록 주택 매수자의 구매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 팀장은 또한 “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 부족과 전·월세가격 상승이 가격 하방 경직성에 영향을 주고 있어 금리 인상이 당장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연 19% 금리 효과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금융위, 내달 7일부터 가입 접수
연봉 7500만원·34세 이하 대상
가입심사 후 11월 16일부터 개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 10월 7일부터 2차 모집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요건은 1차 모집과 동일하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인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심사는 지난해 국제정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정부기여금은 소득요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일반소득자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액의 6%를 지원받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신규 제작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은 12%다. 다만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2차 가입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구분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일반형	우대형	
최대 월 납입액	50만원		70만원
가입기간	3년		5년
최대 총 납입원금	1,800만원		4,200만원
최고 금리	연 7~8%(취급기관별 최대)		연 6% ^{고정} /4.0(지방은행)~4.5% ^{변동} *
정부기여금 지급률	납입액의 6%	납입액의 12%	소득구간별 3~6%
최대 연 수익률(단리)**	약 14.4%	약 19.4%	약 9.2%

*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 (고정) 기본 3.8~4.5% + 우대 최대 1.5~2.2%, (변동) 기본 2.3~3.0% + 우대 최대 1.5~1.7%

**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 등을 일반적인 과세 적금의 금리로 환산한 수익률

가입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허용

이번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제공한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할 수 없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특별종도해 지할 경우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가입자는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 특별종도해 지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인 667명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지원 확대도 추진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현행 12%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의 경우 매칭비율을 25%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 확대는 국회 승인 이후 2027년 모집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입사 시스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한국평가데이터(KoDATA) 등의 정보를 활용해 심사 결과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강화한다.

최종 심사 전에는 가입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안내하고 본인이 선택한 가입유형과 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가입 절차별 알림톡과 문자 안내를 강화하고 접속자 증가에 대비해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서버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상담 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청두·하얼빈·다롄 등 中 항공편 늘린다

국토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중유럽 ‘체코’ 운수권 배분 예정

중국과 체코를 오가는 항공편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공항의 중국 직항노선이 확대되고 인천발 주요 중국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0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수권은 국가 간 합의에 따라 항공사가 특정 국제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배분은 한·중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 노선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지방공항은 부산·청주·대구에서 청두·하얼빈·다롄·샤먼 등 중국 대도시를 오가는 노선이 배분됐다. 올해 말 약 4년 만에 국제선 재개가 예상되는 양양공항에는 상하이와 항저우 노선이 추가됐

다. 무안공항에도 베이징·상하이와 중국 지방 엔지·장자제 운수권이 배분됐다.

인천공항은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 중심에서 저비용항공사(LCC) 등 신규 항공사로 배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인천~베이징 노선 운수권은 주 38회에서 52회로, 상하이는 주 56회에서 63회로 증편된다. 광주와 다롄도 각각 주 21회에서 28회로 늘어난다.

올해 새로 확보한 체코 운수권도 배분해 중유럽 운항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중국 주요 화물공항을 연결하는 운수권도 배정됐다.

정재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항공업계의 노선 운항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이 넓어진 하늘길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의 원활한 취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 기자

KB국민銀-경찰청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

보이스피싱 예방·검거 기여 10명 선정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경찰청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제4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KB국민 ‘지키미상’은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국민을 포상하는 시상식이다.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은 2022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매년 시상식을 열고 일상 속 금융범죄 예방 사례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국민 1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일터와 생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예방했다. 간호사와 통신사 대리점장 등 다양한 직업군의 국민들이 기지를 발휘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금 회수에 도움을 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 명의의 감사장과 함께 KB국민은행이 마련한 100만원의 감사 포상금이 전달됐다.

박선현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sophistication되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KB국민은행은 이상거래 탐지와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고도화하는 등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호석화, 경영권 분쟁 마무리 수순 SSBR 등 고부가 사업 확장 ‘청신호’

〈스티렌-부타디엔합성고무〉

박철완 전 상무 측 우호지분 감소
과거와 같은 표 대결 가능성 낮아져
3분기 영업이익 21.6% 증가 전망

금호석유화학이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영권 분쟁의 부담까지 덜면서 스티렌-부타디엔합성고무(SSBR)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02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합성고무 사업이 실적 개선을 주도한다는 분석이다.

상반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뚜렷했다. 반기보고서 기준 금호석화의 올해 상반기 연결 누적 매출은 4조481억원으로 전년 동기 3조6816억원보다 9.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58억원에서

3984억원으로 114.4% 늘었다.

실적이 회복되는 가운데 5년 넘게 이어진 경영권 분쟁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주주제안을 내놓지 않은 데 이어 박 전 상무 측 우호지분까지 감소하면서 과거와 같은 표 대결이 재연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박 전 상무의 누나인 박은형·박은경·박은혜씨는 지난달 금호석화 보통주 17만1783주를 매각했다. 이들은 2021년 박 전 상무에게서 총 45만7200주를 증여받은 뒤 우호주주로 분류돼 왔다. 이번 매각으로 세 사람이 처분한 주식은 당시 증여 물량의 절반에 가까워졌다.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금호석화는 사업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중국발 공급과잉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범용제품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금호석화는 고부가 합성고무인 SSBR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연산 3만5000톤 규모의 증설 물량이 올해부터 상업 가동에 들어가면서 생산능력 확대 효과도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다. SSBR은 타이어의 회전저항을 낮추면서 제동력과 내마모성을 높이는 소재로 고성능 타이어에 사용된다.

탄소나노튜브(CNT)를 비롯한 첨단소재 사업도 육성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FWCNT(소수벽 CNT) 상업생산을 목표로 고객사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과거와 같은 표 대결이 재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며 “경영권 부담을 덜어낸 만큼 고부가 제품의 수익성을 높이고 신규 사업에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대한항공, 60조 규모 중장기 기단 전략 구체화

미국산 항공기·엔진 구매 계약 확정
아시아나 통합 앞두고 수송력 확대
조원태 회장 “한·미 경제발전 연결”

대한항공이 약 60조원 규모의 미국산 항공기·엔진 구매 계획을 최종 계약으로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이후를 대비해 대규모 항공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기단 현대화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적 거대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보잉과 공동 주최로 보잉의 차세대 항공기 103대와 GE 에어로스페이스·CFM의 예비 엔진 및 정비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항공기 계약 규모는 362억달러(약 49조4000억원), 엔진 및 정비서비스는 86억달러(약 11조7000억원)로 전체 규모는 448억달러(약 60조원)에 달한다. 도입 기종은 ▲777-9 20대 ▲787-10 25대 ▲737-10 50대 ▲777-8F 화물기 8대다. 여기에 예비 엔진 21대와 28대 항공기에 대한 15년간 엔진 정비서비스도 포함됐다.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448억달러(약 60조원) 규모의 대미 구매 계획 최종 계약 행사에 참석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스테파니 포프 보잉 상용기부문 사장 겸 최고 경영자(앞줄 왼쪽 두번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이번 계약은 단순한 항공기 구매를 넘어 통합 대한항공의 중장기 기단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 따른 수송력 확대를 앞두고 장거리 노선부터 단·중거리, 화물 부문까지 차세대 기체를 확보해 기단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미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발표한 448억달러 규모 대미 구매 계획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

날 계약 행사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보잉·GE 에어로스페이스·CFM 경영진을 비롯해 한국 정부와 국책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원태 회장은 “한·미 양국의 경제·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신뢰의 이정표”라면서 “대한항공은 보잉과 GE 에어로스페이스·CFM과 함께 쌓아온 오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국의 교류와 경제 발전을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허태수 회장 “국내 AI 데이터센터 기술 생태계 키울 것”

〈GS그룹〉

허 회장, ‘GS벤처스 테크데이’ 참석

허태수 GS그룹 회장(사진)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기술적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관련 기술 생태계 육성을 추진한다.

GS벤처스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2026 GS벤처스 테크데이’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AI 데이터센터를 주제로 열렸다. GS벤처스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사 6곳을 포함한 스타트업 7곳이 전력·메



모리·냉각·구축·운영 분야의 기술을 소개하고 GS 계열사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허태수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GS에너지, GS칼텍스, GS건설, GS E&R, GS글로벌 등 계열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허태수 회장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 AI 데이터센터의 기술적 병목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GS와 스타트업

의 접점을 넓혀 국내 AI 데이터센터 기술 생태계를 함께 키우겠다”고 말했다.

참여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과 데이터 처리 병목을 줄이는 CXL(Compute Express Link) 기반 지능형 메모리 기술을 발표했다. 이후 GS 계열사 사업 담당자와 참여 기업 간 협력 논의도 이어졌다. AI 데이터센터 사업 전담 법인인 GSAI인프라의 도현수 대표와 실무진도 참석해 기술검증과 사업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원관희 기자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가정·산업 ‘에너지 절감 솔루션’ 총망라

삼성전자 AI DC 냉각 솔루션 공개
LG전자 히트펌프 보일러 등 전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히트펌프와 고효율 가전 등을 앞세워 가정부터 산업 현장까지 에너지 저감 솔루션을 선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는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가한다. 양사는 냉난방공조(HVAC)와 생활가전, 에너지 관리 기술 등을 중심으로 각각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약 270㎡ 규모의 단독 전시관에서 주거용 히트펌프부터 AI 데이터센터와 대형 상업시설용 공조 솔루션까지 에너지 관련 포트폴리오를 소개한다.

전면에는 하나의 실외기로 냉방·난방·급탕을 통합 제공하는 주거용 히트펌프 솔루션 ‘EHS 올인원’을 배치했다.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 봄·가을철 급탕 등 계절별 사용 시나리오와 함께 스마트싱스 기반 원격 모니터링 및 기업 간 거래(B2B) 통합 관리 기능을 선보인다.

공기열과 전기를 활용해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EHS 히트펌프 보일러’도 전시한다. 최근 정부가 난방 전기화 보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가정용 화석연료 보일러를 전기 기반 히트펌프로 대체하려는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히트펌프와 생활가전, 디스플레이를 아우르는 고효율 에너지 솔루션을 선보인다. 대표 제품인 ‘LG 써마브이 히트펌프 보일러’는 공기열을 활용해 투입 전력 대비 약 4~5배 수준의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제품이다. LG전자는 기존 화석연료 보일러 대비 에너지



삼성전자 모델이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삼성전자 부스에서 고효율 히트펌프 솔루션 ‘EHS 올인원’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모델이 ‘LG 써마브이(LG Thermal V) 히트펌프 보일러’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비용을 약 40~60%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냉난방공조 부문에서는 ‘LG 휘센 AI 오브제컬렉션 타워 I 에어컨’과 ‘LG 멀티브이아이’, ‘LG 휘센 AI 시스템에어컨’, 폐열을 회수하는 ‘LG 프리미엄 환기 플러스’ 등을 전시한다.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과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한 워시콤보와 워시타워, 건조기 등을 소개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기존 디지털 사이니지 대비 소비전력을 99% 이상 줄인 ‘LG 이페이퍼 디스플레이’와 대기모드 소비전력을 0.5W 이하로 낮춘 ‘LG 스탠바이미 2 맥스’를 전시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SK이노, 에너지 생산-운영 전 과정 연계

인텔리전트 파워 플랜트 등 전시

SK이노베이션이 재생에너지와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소형 모듈원자로(SMR), 액화천연가스(LNG)를 결합해 AI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통합 에너지 솔루션을 선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생산과 저장, 공급, 운영 기술을 AI 인프라와 연계한 통합 솔루션을 공개한다.

통합 솔루션은 재생에너지와 BESS, SMR, LNG 열병합 발전을 고객의 전력 수요에 맞춰 조합하는 방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생산부터 운영 최적화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AI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전력 생산 기반을 확대하

고 있다. 2026년 5월 말 기준 글로벌 재생에너지 사업 파이프라인은 약 5.3GW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태양광과 풍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은 SK온의 BESS로 보완한다. SK온은 예측 기반 배터리 관리 기술로 안전성을 높이고 팩 단위 설계를 적용해 전력 운영 효율과 시스템 확장성을 강화했다. SMR과 LNG 열병합 발전을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도 확보한다. SK는 미국 테라파워와 차세대 SMR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LNG 열병합 발전은 전기와 열을 함께 공급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들 에너지원을 AI로 통합 관리해 운영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전시장에서는 AI 기반 ‘인텔리전트 파워 플랜트(Intelligent Power Plant)’를 비롯해 SK텔레콤의 ‘AI 팩토리(AI Factory)’,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함께 선보인다.

/원관희 기자

중소·중견기업 2題

“성장 과실 中企까지 달게 국회가 입법해달라”

김기문 회장, 조정식 의장 예방
中企 입법현안 전달·제도개선 건의
납품대금 지급기일 30일 단축 요청
기업승계·계속고용 지원확대 촉구
조달청장에 적정가격 보장제도 건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까지 전 달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취임 인사와 함께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전달하며 “최근 경제가 반도체 등 일부 업종 효과로 인해 호황 같지만 중소기업은 대출연체율, 법안파산신청이 치솟는 등 K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예방에는 김 회장 외에도 중기중앙회에선 권혁홍·배조웅 수석부회장, 한병준·강동한·김석원 부회장이 함께 했다. 아울러 김 회장 일행은 ▲을

(乙)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 및 연동제 인착 지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기한 단축 ▲기업승계 지원세제 개편안 개선 ▲고령인력 계속 고용 자율성 보장 및 인센티브 확대 등 중소기업 입법 현안을 건의했다.

‘을 협상력 제고를 위한 법령’은 중소기업 단체협상에 대한 담합 배제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말한다. 중소기업계는 관련 법들이 연내에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납품대금 지급기일도 현재 ‘60일’에서 ‘30일’로 줄여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자금유동성 확보를 돕자는 게 중소기업계의 바람이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도

염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승계’를 ‘기업 승계’로 용어를 바꿔 정책범위를 확장하고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하자는 목소리다. 김 회장은 이날 제22대 후반기 국회를 맞아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도 전달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후 백승보 조달청장을 서울 여의도 본회로 초청, 조달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조달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제품의 품질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조달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공영홈쇼핑·홈쇼핑

추석 앞둔 협력사에 판매대금 조기 지급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TV홈쇼핑인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16일 관련 기업들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번 조기 지급은 명절 전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구매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난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진행했다. 이에 따라 방송 및 모바일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기존 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대금을 지급한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배송 완료한 주문의 상품대금은 21일, 15일부터 21일까지 배송 완료된 주문의 상품대금은 23일 각각 지급한다.

450억 규모 유동성 지원

소상공인 등 자금부담 완화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라면 각각 15일과 22일부터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조기지급이 협력기업의 자금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홈앤쇼핑도 약 15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조기 지급 대상은 협력사, 소상공인 등 약 1000여 곳에 달한다. 홈앤쇼핑은 업계 최단 수준의 지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평균 지급 주기가 업계 대비 최소 2일에서 최대 7일 빠르다. 홈앤쇼핑의 조기 지급은 단순한 조기 지급을 넘어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

“중견기업 목소리 커져야 성장 사다리 튼튼해진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중견기업 169곳에 친필서신
“무한경쟁 돌파 해법 자강과 연대”
중견기업 10년새 2979→6474곳
매출 1030조·고용 175만명 돌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은 “더 많은 중견기업이 중견기업의 말을 할 때,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중견련에 따르면 최진식 회장은 지난 14일 산업별 우수 중견기업 169개 대표에게 보낸 친필 서신에서 “오늘과 미래 세대의 삶을 아울러 지탱할 경제 대도약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현



장에서 버려낸 깊은 경륜을 나눠 달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최 회장은 서신을 통해 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토론과 실천의 장에 대표 기업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도 요청했다.

최 회장은 “무한경쟁의 시대, 혼돈의 국제 정세를 돌파할 해법은 자강과 연대”라면서 “첨단을 종횡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K-뷰티, K-푸드, K-콘텐츠, K-컬처 등이 견인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일신하고 기업 간의 강고한 호혜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존속을 담보할 장기적인 산업 기반의 체계적 기동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14년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시행후 10여년 간 중견기업 숫자는 2979개에서 6474개로, 총

매출은 483조6000억원에서 1030조5000억원으로, 기업들의 총 고용은 89만8000명에서 175만700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최 회장은 “AI 혁명,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성패를 가를 급격한 변화의 기로에서 경제의 ‘허리’를 바로 세워 후대를 책임질 조화로운 풍요의 근간을 다지는 작업에 중견기업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올해 상반기 사무국 임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원사 방문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회원사 소통 확대와 신규 회원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metro

SK인텔릭스 ‘나무엑스’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AI 웰니스 로봇 현지 공개

SK인텔릭스의 AI 웰니스 로봇틱스 브랜드 ‘나무엑스(NAMUHX)’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다. 16일 SK인텔릭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주요 정부 인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엑스 공식 런칭 행사를 열고 글로벌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말레이시아 진출은 나무엑스가 추진하는 첫 해외 시장 확장이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국가 차원의 산업 정책을 통해 기존 서비스 및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 AI 등 첨단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AI 및 데이터 센터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나무엑스는 이러한 시장 흐름에 발맞춰 혁신적인 AI 웰니스 로봇을 현지에 선보이며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SK인텔릭스 나무엑스 관계자는 “말레이시아는 첨단 AI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이번 런칭 행사를 통해 나무엑스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가치를 성공적으로 알렸다”며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향후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나무엑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세계적인 웰니스 로봇틱스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대학 중심 청년창업 지원 확대

부산대서 대학창업 페스티벌 개최
전국 11개 창업중심대학 비전 선포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곳곳에서 열었다.

중기부는 16일부터 이틀간 부산대에서 ‘2026 대학창업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전북대, 한남대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린 행사는 대학 교육·실습과 취·창업을 연계해 청년 창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 날 가진 ‘창업중심대학 비전 선포식’에선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유종필 창업진흥원장, 최재원 부산대 총장과 전국 11개 창업중심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의 창업 준비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맞춤형 창업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와 별도로 노용석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의 창업 토크 콘서트’도 열렸다.

전국 11개 창업중심대학의 권역별 예

선을 거친 22개 대학 창업팀, 약 100명이 참가한 ‘모두의 창업 대학리그 해커톤’도 진행했다. 참가팀은 사업모델 고도화·투자유치·판로개척·글로벌 진출 등 4가지 미션 중 1가지를 선택해 경쟁을 펼쳤다.

해커톤에서 최종 선정된 우수 5개 팀에게는 중기부 장관상과 최대 1000만원 등 총 2400만원의 상금이 돌아간다.

노 차관은 “대학이 청년들에게 창업을 경험하고, 연결되고,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창업중심대학을 지역 청년창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Seoul)에서 창업가들이 서로 연결되고 경험과 지원을 나누는 ‘모두의 창업 커뮤니티’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발대식을 별도로 가졌다.

또 인하대에서 ‘2차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를 별도로 열고 청년 창업가 및 대학생들과 추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하이넷, 선진그룹 등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서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현대차, 수도권 수소버스 480대 보급

선진그룹과 수소 모빌리티 확대 협약
2032년까지 수소버스 단계적 도입

현대자동차가 대형 운수업체와 손잡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나선다. 특히 단순히 차량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충전시설을 수소충전소로 전환하는 등 충전 인프라까지 함께 구축하며 국내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대로 사옥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선진그룹, 하이넷,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원가스수소충전협회와 ‘충전 인프라 혁신 기

반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선진그룹의 수도권 주요 버스 노선에 수소버스를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이를 뒷받침할 대용량 수소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17개 운수법인을 운영하는 선진그룹은 약 1700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다. 선진그룹은 오는 2032년까지 총 480대의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김포·파주 소재 차고지의 기존 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성운 기자 ysw@

gift

추석 마중

추석선물 사전예약
감사의마음을 전합니다

산지직송으로 **능수한우암소세트** 제품과
프리미엄 솔트에이징 육류, **프리미엄 과일**까지
명절전물세트의 모든 것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 알짜매물 ‘풍성’

9월 가을 성수기를 맞아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다. 이
사철과 맞물려 공급이 본격화된 만큼 대출규제와 고금리로 관망하
던 수요가 다시 청약시장으로 돌아오는 분위기다. 특히 수도권과
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물량이 동시에 시장에 나오면서 실수
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분양 물량
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주목을 받은 반도체 벨트에서는 평택시 고
덕국제신도시에서 아파트가 나온다. 이와 함께 최근 신축 공급이
드물었던 경남 거제와 양평에서도 청약을 진행한다. 역세권에 위
치해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실거주 여건을 모두 갖춘
단지들이 선보이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경우 시세차익을 노
려볼 수도 있다. 부동산시장 한 전문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금융비
용 부담이 맞물리면서 분양시장에서도 수요자들이 분양가와 자금
조달 여건을 더욱 꼼꼼히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공급 규
모와 함께 분양가 경쟁력과 입지에 따라 청약 수요가 차별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가능... 강남 40분대 출퇴근



하남 생활권을 이용할
차량으로 약 15분대 거리
해 신세계백화점, 이마
점 소핑시설이 위치했다.
등학교와 양수중학교가
특별전형 지원 대상 학교
권에 위치해 있다.
강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에 일부 세대는 두 개의
수 있다. 여기에 두물머

리를 비롯해 세미원과 양서문화체육공원 등도
가깝다.
특화 설계도 적용된다. 세대 내부에는 유리
난간 및 한강 파노라마 조망 설계를 통해 개방
감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
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등 기존 양서면에서
는 보기 드물었던 커뮤니티 시설이 구축될 예
정이다.
쌍용 더 플레티넘 한강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에 마련된다.

식음료 등 5대 특화 서비스



이 이동을 지원한다. 또
제공하는 중·석식 식음
광주 최초 실내 인도어
인덱프라이브러리의 자
용한 프리미엄 관리형
년 오픈 예정인 롯데리

조트 울산 특별회원가 혜택을 5년간 제공할 예
정이다.
단지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되
는 약 51만㎡ 규모의 쌍령공원을 품은 숲세권
단지다. 공원은 프리츠커상 수상자 리차드 마이
어의 참여와 생태계 비오톱 개념 도입으로 수준
높은 자연 공간이 구현된다.
교통환경은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를 이용하
면 경기광주역(경강선)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경기광주역에서 판교역까지 4정거
장, 강남역은 환승을 포함해 8정거장으로 접근
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경춘대교가 잘 갖춰져
있어 태전JC, 경기광주JC, 쌍동JC 등으로 접
근하기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는 광주시 G-스타디움이 지난
4월 준공해 시민체육관과 워터파크 등 체육·여
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 약 10분 거리
에 이마트(광주점), 하나로마트(광주점), 경안
시장 등 대형 유통 시설과 전통시장이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일원에 마
련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직주근접... 분양가 상한제 적용

‘힐스테이트 고덕엘리트’

현대건설

단지 인근에 BRT 노선 정류장 조성 예정

현대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에 ‘힐스테이트 고덕엘리트’를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고덕엘리트는 평택시 고덕국
제화지구 A12·65블록에 들어선다. A12블록은
지하 1층~지상 23층 942가구, A65블록은 지하
2층~지상 27층 837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
구수는 A12블록 ▲84㎡A 401가구 ▲84㎡A
1 176가구 ▲84㎡B 178가구 ▲84㎡B1 23가구
▲84㎡C 164가구 등이다. A65블록은 ▲84㎡A
500가구 ▲84㎡A1 155가구 ▲84㎡B 155가구
▲84㎡B1 27가구 등이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
가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만 구성됐으
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고덕국제신도시는 삼성전
자 평택캠퍼스와 인접한 직주근접 단지다. 최근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공장 증축 계획이 추진되
고 있다.



교통여건으로는 1호선 서정리역과 SRT 평택
지역역이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
며, 고덕국제신도시를 순환하는 BRT 노선 정
류장이 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생활인프라로는 평택시청 신청사 이전이 예
정돼 있으며, 기존 활성화된 고덕1단계 생활인
프라 등 상업용지도 인접했다. 이와 함께 아홉
거리근린공원, 망당산, 망당공원 등이 단지 주
변에 위치해 도심 속에서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
인 정주 여건을 누릴 수 있다.

교육 환경은 고덕3초교(예정)를 비롯해 고덕
8초교(예정), 고덕6중교(예정), 민세초·중학교,
송탄고등학교가 단지 주변에 위치했다. 국제학
교 신설이 예정된 에듀타운도 가까이 자리 잡고
있다.
단지는 4베이(Bay·전면을 향한 방이나 거실
의 수) 판상형 타입을 다수 배치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높였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마
련된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인접... 교육 특화 프로그램 제공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

현대엔지니어링

단지 바로 앞 옥포초등학교 이전 예정

현대엔지니어링은 경남 거제시 옥포동 일
원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공급한다.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는 옥포동 일원에
지하 7층~최고 36층, 전용면적 84㎡~165㎡
P, 총 1963세대로 조성된다. 거제 최대 규모
다. 전용면적 138㎡~165㎡P 펜트하우스 6세
대를 포함한 중대형 중심의 주택형으로 구성
되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옥포동은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과 인접한 대표적인 배후 주거지다. 직
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조선소와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안정적
인 실거주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입지다.
거제대로를 통해 거제 주요 지역과 통영 방
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거가대교를 이용하
면 부산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올해 2



월에는 경북 김천과 거제를 연결하는 총연장
174.6km의 남부내륙철도가 착공해 향후 수
도권과 거제를 잇는 광역교통 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옥포초등학교 이전이 예
정돼 있다. 옥포초 이전 부지 조성공사는
2026년 4월 착공계가 접수됐으며 2029년 개교
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옥포성지중학교도 도
보원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애서튼 국제외
국인학교 및 메가스터디교육과 업무협약(M
OU)을 맺고, 입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특화 프
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변에 롯데마트와 하나로마트, 옥포국제
시장, 옥포1동 주민센터 등이 자리하며 옥포
운동장과 옥포중앙공원 등 여가시설도 가깝
다. 국사봉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고 일부 세대에서는 옥포항 오션뷰
도 확보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에는 다목적체육
관을 비롯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
장과 사우나가 마련된다. 실내 인도어골프연
습장, 피트니스 등도 계획돼 있다.
견본주택은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에 마
련된다.

계양신도시 첫 민간분양... 브랜드 상업시설 ‘시간’ 적용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

반도건설

박촌역 인접... 김포공항역 3정거장 이동

반도건설은 인천 계양신도시에서 ‘계양신도
시 카이브 유보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계양신도시 AC3블록과 AC4블록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건립된다. AC3블
록 614세대와 AC4블록 496세대를 합쳐 총
1110세대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총 203실로 구
성된 주상복합 단지다. 아파트 전용면적은
84·92·93㎡ 등 가족단위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평형으로 공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계양신도시는 약 335만㎡ 구
모의 자족형 도시다. ICT 및 디지털 콘텐츠 중
심의 수도권 서북부 첨단 산업축인 ‘계양AX과
크’가 판교의 약 1.4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의도 공원의 약 4배 규모에 달하는
공원과 녹지를 품은 보행특화도시로 꾸며진다.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는 계양신도시의



첫 민간분양 단지다. 인천 1호선 박촌역이 AC3
블록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김
포공항역까지 단 3정거장만 이동하면 된다. 김
포공항역은 공항철도, 5·9호선, 서해선의 환승

역으로 공항철도 또는 9호선으로 환승하면 마
곡나루역까지는 4정거장으로 여의도와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
다. 단지 바로 앞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
교 부지도 예정되어 있다.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는 특화 설계가 도
입되는 것은 물론 두 개 블록 모두 세대당 1.50
대에 달하는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작은도
서관, 어린이집, 경로당을 비롯해 게스트룸, 코
인세탁실, 계절창고, 건식세차장 등 다양한 시
설이 마련된다.
단지 내 상업시설에는 반도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업시설 ‘시간(時間)’이 적용된다. 단지
내 상가는 보행특화도시로 조성되는 계양신도
시의 특성과 어우러져 일상 속에서 걷고, 즐기
고, 마무는 체류형 브랜드 몰로 설계했다. 상업
시설은 AC3블록 112실과 AC4블록 91실 등 총
203실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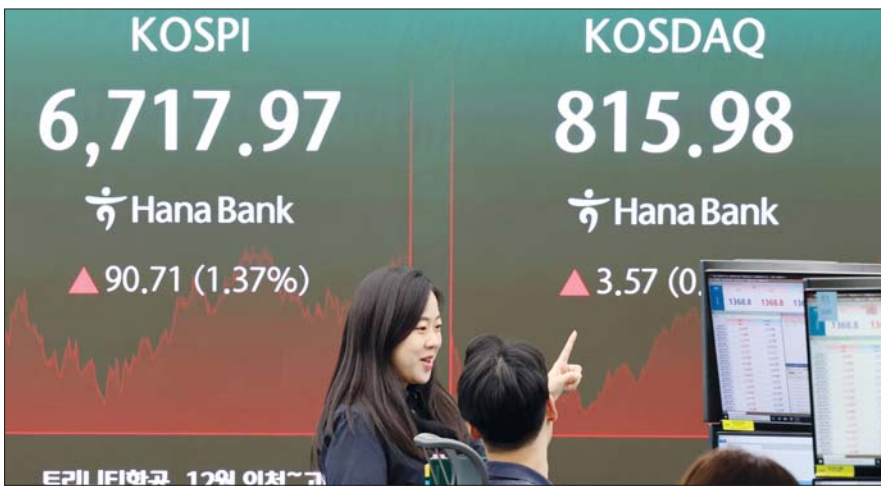
외국인 셀코리아에도… 글로벌 IB “코스피 1만2000 간다”

골드만·JP모건, 코스피 전망 ‘낙관’
기업 구조 개혁·반도체 호황 영향

외국인, 이달 코스피 10.6조 순매도
매도 폭격 속 긍정 전망 의구심에
관계자 “전문가 객관적 분석” 일축

최근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한국 주식 매각)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티머시 모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양수석 주식전략가는 지난 4일 인터뷰에서 코스피 목표치 1만2000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실적이 뒷받침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내다봤다. JP모건은 코스피 12개월 목표치 1만2500을 유지했다.

◆“한국 증시 및 반도체, 여전히 매력적”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악재에도 올해 코스피지수는 60% 남짓 올랐다. 뉴욕 증시의 S&P500 지수가 올해 10%가량을 랐고, 일본 닛케이지수도 약 26% 오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앞선다. 외국계 IB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코스피는 전일보다 1.37% 오른 6717.97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3.57포인트(0.44%) 오른 815.98에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한국 증시 비중 확대를 추천하는 이유는 구조적 기업 개혁과 반도체 호황을 든다.

모 전략가는 “우리는 여전히 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예상한 실적을 실제로 달성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은 이번 실적 사이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6월 코스피 목표치를 9000에서 1만2000으로 높였다. 당시에

도 시장에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JP모건은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 자산효과에 따른 금융·소비 업종 수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국내 증시의 중장기 상승 요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올해 하반기 주요 투자 테마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노무라는 지난 5월 코스피 목표치를 1

만~1만1000으로 상향 조정한 후 줄곧 유지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들었다. 정창원 노무라 아시아 리서치 공동대표는 “AI가 끌고 가는 메모리 수요는 5년간 1만, 2만배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도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도 각각 67만원, 470만원으로 유지했다. 두 종목의 주가가 고점 대비 약 37% 하락했지만 2027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이 평균 3배 수준에 불과해 밸류에이션 매력에 오히려 커졌다는 분석이다.

모건스탠리도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올리고 코스피 목표치 9000을 유지했다.

◆외국인은 왜 팔까?
글로벌 IB들의 한국 증시 추천에 대해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발을 쉽게 뺄 수 있도록 일부러 장밋빛 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글로벌 IB

들이 한국 바이오주에 대해 ‘매도’ 리포트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공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작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이날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0조 5800억원 순매도했다.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3조6000억원)와 SK하이닉스(5조4900억원)였다. 이어 삼성전자유, DB하이텍, 두산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 두산, HD현대중공업 등이 순매도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내의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도 “리서치 부문과 트레이딩(매매) 부문은 엄격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은 불가능하다”면서 “외국계뿐만 아니라 다수 국내 증권사도 올해 워낙 반도체 업황 전망이 좋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ETF 투자, 어떻게 하지?”… 삼성자산운용, 학습형 가이드북 공개

‘일주일 만에 끝내는 ETF 완전 정복’
학습지 형태 적용한 기본서 선배
하반기 시장 전망·대응전략 제시도

상장지수펀드(ETF)가 대표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품을 고르는 법부터 시장 상황에 맞는 활용 전략까지 투자자들의 관심사도 넓어지고 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비용과 구조, 분배 방식 등에 따라 상품별 특성이 달라지는 만큼 ‘무엇을 살지’에 앞서 ‘어떻게 볼지’를 익히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자산운용은 ETF의 기본 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는 학습형 가이드북을 내놓고, 하반기 변동성 장세에 대응할 수 있

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했다.

삼성자산운용은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주일 만에 끝내는 ETF 완전 정복’ 기본서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시장 전망과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별 ETF 활용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서는 ETF 투자에 필요한 핵심 개념과 구조를 일주일 동안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지 형태로 구성됐다. 최근 ETF 투자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정보가 늘어난 가운데, 투자자들이 복잡한 금융 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올바른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도형 삼성자산운용ETF컨설팅본부장은 “일주일 만에

끝내는 ETF 완전정복’의 제작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책자는 올해 삼성자산운용 임직원들이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접한 질문 가운데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을 선별해 담았다.

김 본부장은 “시장 방향과 무관하게 ETF 투자 시 기본적으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이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시장이 슬로우해진 시기이지만 투자자들에게 기본을 다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 고객들의 중첩되는 질문들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특징은 ‘학습지 형태’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하루 10분씩 핵심 내용을 학습한 뒤 관련 퀴즈와 실습 문제를 풀며 이

해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커리큘럼은 ▲DAY 1 ‘ETF의 기본 구조와 거래’ ▲DAY 2 ‘가격·비용·분배와 첫 선택’ ▲DAY 3 ‘ETF 속을 읽는 방법’ ▲DAY 4 ‘상품구조와 비교 기준’ ▲DAY 5 ‘투자 목적에 맞춘 활용’ ▲DAY 6 ‘전략·세금·투자 원칙’ ▲DAY 7 ‘최종 점검-나의 ETF 투자 준비’ 등 7일 과정이다.

이어 임태혁 삼성자산운용ETF운용본부 상무는 하반기 시장 전망과 함께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기 위한 ETF 활용 전략을 제시했다.

임 상무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아 단기 시장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고점과 저점을 맞이하려는 단기 매매

보다 한국과 미국 대표지수를 중심으로 기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투자자의 시장 판단과 투자 성향에 따라 월배당 상품을 통한 현금흐름 확보,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핵심 테마, 채권형 ETF 등을 조합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임 상무는 “앞으로도 삼성자산운용 KODEX ETF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과 안정적인 운용은 물론 기초 교육 콘텐츠와 상황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제공하며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는 ETF 브랜드로서 시장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키움증권 “美 고금리 장기화… AI 투자 사이클 ‘변수’”

실물경제·신용시장 전이 중요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가 인공지능(AI) 투자와 기업 신용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까지 금융시장 전반으로 신용위험이 확산하는 모습은 뚜렷하지 않지만, AI 투자 확대 과정에서 기업 간 자금·신용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키움증권은 16일 ‘고금리 부담, AI 투자와 신용시장의 연결고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했던 기대가 인상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까지 겹치면서 물가 재상승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가 인공지능(AI) 투자와 기업 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표현한 이미지.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장기금리 상승이 곧바로 금융시장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리의 절대 수준보다 고금리 부담이 실물경제와 신용시장으로 전이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특히 AI 투자 지속 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현재 AI 투자는 높은 현금창출력을 보유한 하이퍼스케일러가 주도하고 있어 재무적 기반은 비교적 양호하다. 하지만 데

이터센터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채 발행 등 외부자금 활용도 확대되고 있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자본비용 상승에도 현재의 투자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AI 투자 사이클의 핵심 변수”라고 짚었다.

AI 생태계 내 자금 흐름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공급자 금융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다시 그래픽처리 장치(GPU)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로 유입되는 이른바 순환금융 구조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기업 간 자금과 신용의 연계성이 높아질수록 특정 기업의 수익성 악화나 신용도 하락이 AI 생태계 내 다른 기업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신용위험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투자등급(IG)과 고수익(HY) 회사채스프레드가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증권 MTS, ‘맵스’로 새 단장

내달부터 M-STOCK서 명칭 변경
디지털자산까지 플랫폼서 거래

미래에셋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STOCK(엠스탁)’이 다음 달부터 ‘MAPS(맵스)’로 이름을 바꾼다. 주식 거래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MTS를 넘어 주식·연금·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아우르는 투자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0월 1일부터 MTS 명칭을 기존 M-STOCK에서 MAPS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MAPS는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이 지난 6월 선보인 글로벌 투자 플랫폼이다. ‘Mirae Asset Portfolio Service’의 약자로,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뿐 아니라 디지털자산까지 한 모바일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홍콩에서 먼저 MAPS를 출시한 뒤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서비스를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0월 1일부터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명칭을 기존 M-STOCK에서 MAPS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내 MTS에도 플랫폼 개편 방향을 반영한다. 기존 M-STOCK에서 제공하던 주식 매매 기능에 더해 투자 정보를 탐색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자산의 시세와 투자 정보 역시 기존에 나뉘어 있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AI 관련 서비스도 앱 내 한 곳으로 통합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주식과 연금은 물론 디지털자산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하은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예매하기



휴남동 서점

WE'RE
Open

2025.03.01 ~ 2026.09.30 루미나아트홀

세계 항만 리더 부산 집결… AI·탈탄소로 ‘새 150년’ 연다

BIPC 2026 역대 최대 규모 개최

공급과잉·회복탄력성 해법 논의
수소·암모니아 연료전환 전략 공유
지능형 자율운행 체계구축 본격화
북극항로·국제기구 협력방안 모색

전 세계 주요 항만 최고경영자와 국제기구 인사들이 부산을 찾았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탈탄소 전략이 담긴 미래항만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부산항은 새 150년을 내다보고 첨단미래항만 설계에 한창이다. 지난 19세기 ‘부산포’라는 명칭으로 개항한 지 150년이 흘렀다.

부산항만공사(BPA)는 15일과 16일 양일간 부산 동구 소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14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BIPC 2026)’를 개최했다.

행사는 ‘계획을 넘어 실행으로, 변화의 시대를 이끄는 혁신’을 주제로 열렸다. BPA 관계자는 “올해 행사에 개항 150주년을 맞아 역대 가장 많은 세계 주요 항만 CEO와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운시장 전망을 비롯해 탈탄소, AI, 항만 안전, 북극항로 등 주요 현안



이달 15~16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4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

/BPA

을 논의하고 각 항만의 경험을 공유했다. 각국의 주요 연사들은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엔스 마이어 국제항만협회(IAPH) 총재 겸 함부르크항만공사 사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미래 항만의 경쟁력은 위기에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에 달려 있다고 했다.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대체 시설과 운송로, 백업 시스템을 확보하고 평소 항만 간 신뢰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변동성 시대, 컨테이너 해운의 회복탄력성’ 주제의 세션 1에서는 건조한 수요 뒤에 다가오는 공급과잉 위험이 언급됐

다. 씨인터텔리전스의 앨런 머피 대표는 현재 신(新)조선 발주잔량이 기존 선대의 43%에 달한다며, 선박 해체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에즈 운하 운항까지 정상화되면 초과 선박이 최대 2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너리티카의 탄화주 대표는, 전쟁·고유가 속에도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6% 이상 증가한 배경으로 전기차·배터리 태양광 제품과 AI 데이터센터 관련 화물을 꼽았다. 다만 대규모 신조선 인도가 본격화되면, 이 같은 수요 증가만으로 선박 공급을 흡수하기 어려워 해상운임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테르담항만공사의 비우더바인 시몬

스 사장은 ‘항만 탈탄소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한 세션 2에서 수소 인프라와 암모니아 연료공급 실증 및 녹색해운항로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친환경 연료의 공급과 경제성·규제 차이 등을 주요 과제로 짚고, 항만 간 협력으로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선 AI’ 주제의 세션 3에서, 데이터 통합 및 자동화 기반을 토대로 지능형 자율운영 항만으로 나아가는 부산항의 인공지능 전환(AI) 전략을 발표했다. 송 사장은, AI로 운영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검증한 모델을 국내외 항만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행사 기간, 항만과 국제기구 간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도 마련됐다. 특히 국제항만협회(IAPH)와 아시아개발은행(ADB)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세션도 이어졌다.

송상근 사장은 “부산항의 새로운 150년을 여는 출발점에 역대 가장 많은 세계 항만 리더들이 함께해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BIPC를 통해 세계 항만의 지혜를 모으고, 논의의 성과가 항만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metro

발전소 고유번호로 인허가·폐업 통합관리

기후부, 유관기관과 시스템 구축
전기사업 민원 8종 온라인 일괄 처리
한전 등 4개 기관 전력정보 연계

앞으로 발전소마다 자동차 번호판과 같은 ‘고유번호’가 부여돼 인허가부터 폐업까지의 모든 이력이 하나로 통합 관리된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돼 지연되던 발전사업 관련 민원도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기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과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력 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전기사업법’(제24조의3) 이행을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전기사업 인허가·설비·검사·시장거래 등 관련 정보가 전기위원회, 지자체,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에 분산돼 있어 민원 처리 지연과 데이터 불일치 등 행정 불편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 개시 등 8종의 주요 전기사업 민

원을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접수하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발전사업 허가 시 발전소별 고유번호(디지털 주소)를 부여해 신청, 착공, 검사, 운영 등 생애주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할 방침이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과 정보시스템 구축은 분산된 전력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전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

송미령 장관, 농촌 창업 우수기업 현장 방문

정읍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찾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 창업·융합산업 부문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는 기업을 찾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16일 전북 정읍 소재의 농업회사법인 한영석의 발효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소 등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 업체는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해 전통주를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지역농산물 사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지역주민 고용도 확대하는 등 농촌 창업의 성장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농촌 창업·융합산업의 우수기업 사례다.

송 장관은 “청년 등과 기업이 농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시스

새로운 창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보육·투자·판로 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전통주를 지역 농업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대표 K-푸드 핵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고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무보, 첫 ‘온렌딩’ 도입… 中企 카자흐 진출 지원

개발은행에 4800만유로 금융 지원
현지 프로젝트 재대출 방식 활용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국내 중소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국책은행과 손잡고 새로운 금융 지원 방식을 선보였다.

무보는 카자흐스탄개발은행(DBK)에 4800만 유로(약 750억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무보가 해외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해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 대출을 돕는 ‘온렌딩(On-lending)’ 방식을 도입한 첫 번째 사례다.

온렌딩은 무보를 통해 글로벌 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DBK가 이 자금을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프로젝트에 재대출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DBK는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기업은 현지에서 보다 수월하게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오른쪽)이 지난 15일(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마라트 엘리바예프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장과 공동선언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무보는 지난 15일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카자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최대 2억 유로 규모의 금융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내 한국 기업 참여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향후

추가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앞으로도 해외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기업이 신흥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기대 취업박람회, 기업·기관 40여곳 참여

반도체·전자·자동차 등 채용상당
지난해 취업률 82.8% 4년제대 1위

한국기술교육대가 주관한 취업박람회에 대기업과 공공기관, 외국계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40여 곳이 참가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 취업 경쟁력을 수치로 입증한 바 있다.

한기대는 16일 ‘2026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반도체·전자·자동차·기계·에너지 분야의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이 대거 참가해 관심을 모았다.

한기대는 지난해 국내 4년제 대학 중 졸업생 취업을 부문 1위에 올랐다. 작년 12월 정보공시 기준 취업률 82.8%로 4년제 가운데 유일하게 80%대를 기록했다. 올해 박람회는 기업채용관과 졸업동문

멘토링관, 이벤트관 등으로 구성했다.

기업채용관에는 JB주식회사, KB오토시스, SFA반도체, 글로벌텍, 영림산업, 육군본부, 천안도시공사, 케이씨텍, 한국중부발전 등 33개 사가 참여했다. 각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기업 및 직무를 소개하고, 채용계획과 인재상, 직무별 필요 역량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또 졸업동문 멘토링관에는 LG전자, 국가철도공단, 스테코, 부영 등에 재직하고 있는 동문들이 직접 멘토로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본인의 취업준비 경험과 입사과정, 실제 직무 등을 후배들과 공유했다. 이벤트관에서는 학생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AI 포토부스, 취업타로, 퍼스널 컬러 진단, 이력서용 사진 촬영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경육고와 동일 성분·함량”… 불법 비교광고에 소비자 ‘혼란’

추석 앞두고 약국가 판촉 경쟁 과열
후발업체, 시장 1위 광동 제품 겨냥
가격 앞세운 직접 비교 판매 확산
효능 동일시 우려에 적정성 논란
광동제약, 관련 내용 검토 법적 대응

추석을 앞두고 건강 관련 선물 수요가 늘면서 ‘경육고’ 시장의 판촉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 일부 제약사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동 경육고’를 겨냥, 성분·함량과 가격을 비교하는 광고물을 게시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동일 효과를 주장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약국가에서는 일부 제약사가 자사의 경육고 제품을 광동제약의 ‘광동 경육고’와 직접 비교하는 판촉 활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메트로경제가 약국 등에서 확인한 광고물에는 ‘광동 경육고와 동일성분입니다’ ‘동일성분 동일함량’ 등의 문구가 담겼다. 타사의 특정 제품과 비교해 동일 성분 대



약국에 게시된 경육고 비교 광고물.

비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며 판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재 약국 판매용 경육고 시장에서 ‘광동 경육고’는 전체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며 절대적인 1위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스티형 포장 도입과 지속적인 마케팅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높였다. 1위 업체를 타깃한 불법 광고가 시작된 것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 수요를 노리는 후발 주자들의 과열 경쟁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경육고가 일반의약품이라는 점이다.

약사법 제68조 제1항은 의약품의 거짓·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68조의2 제1항은 의약품 광고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가 약국을 통해 경쟁 제품을 직접 비교하는 광고 문구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관련 광고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동일성분·동일함량’이라는 표현을 특정 경쟁 제품과의 가격 비교에 활용하도록 제약사가 나선 점이 쟁점으로 꼽힌다. 동일성분이라는 것만으로 경육고의 효과가 같다고 주장

하는 점이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은 유효성분과 함량이 같더라도 원료의 특성이나 부형제, 제조공정 등 완제품을 구성하는 요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요소는 약물의 흡수나 생체이용률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때문에 유효성분과 함량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다른 의약품이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광동제약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가격 경쟁 자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지만, 제약사가 성분과 함량이 같다는 점을 근거로 서로 다른 의약품이 사실상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인식시키는 마케팅을 장려할 경우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다”며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한국마즈, 켈로그 품고 국내 사업 통합

글로벌 켈라노바 인수 후속 작업
이두호 대표, 확대 사업 전반 총괄
시리얼·스낵까지 포트폴리오 확장

한국마즈가 켈로그 사업을 포함한 국내 사업 통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 글로벌 마즈의 켈라노바 인수에 따라 한국에서도 사업과 조직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한국마즈는 전날 전 직원이 참여한 첫 통합 타운홀을 열고 확대된 한국 사업의 비전과 향후 방향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두호 한국마즈 대표이사는 기존 사업에 켈로그와 프링글스가 더해진 국내 사업 전반을 이끈다.



이두호 대표이사.

/한국마즈

이번 통합은 글로벌 마즈가 지난해 12월 농심켈로그의 모회사인 켈라노바를

인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마즈는 초콜릿과 껌·민트, 펫케어에 이어 시리얼과 스낵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기존 한국마즈는 스니커즈·트웬스 등 초콜릿과 이클립스 등 껌·민트, 시저위스 카스·그리니즈 등 펫케어 브랜드를 운영해왔다. 여기에 켈로그와 프링글스가 합류하면서 식품과 펫케어를 아우르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이두호 대표는 통합 타운홀에서 “각 사업과 브랜드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만들어가겠다”며 “소비자와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n

엔제리너스, 저당 크림라떼·가을 디저트

당류 최대 68%·칼로리 39% 낮춰
마롱 치즈케이크·카스텔라도 선택

엔제리너스가 당류와 칼로리를 낮춘 크림 라떼 2종과 가을 시즌 디저트 2종을 선보인다.

롯데GRS가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엔제리너스는 17일 가을 시즌 신제품 4종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저당 음료와 디저트로 구성했으며, 건강 관리와 체중 조절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를 겨냥했다.

음료는 ‘라이트 모카크림 라떼’와 ‘라이트 그레인크림 라떼’다. 엔제리너스는 시중 크림폼 라떼와 비교해 당류를 최대 68%, 칼로리를 최대 39% 낮췄다고 설명했다. 라이트 모카크림 라떼는 저당 바닐라·연유 베이스에 에스프레소와 저당 초코 소스를 넣었으며, 라이트 그레인크림 라떼에는 17곡 과우더와 저당 바닐라 라떼 베이스, 라이트 카라멜 소스를 사용했다.



엔제리너스, 가을 신제품 4종.

/롯데GRS

디저트로는 ‘마롱 바스크 치즈케이크’와 ‘생크림 카스텔라’를 출시한다. 마롱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밤과 크림치즈를 조합했으며, 생크림 카스텔라는 카스테라 안에 생크림을 넣은 제품이다.

엔제리너스는 이번 신제품을 ‘엔제린 밸런스’ 라인업으로 구성하고 저당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GRS 관계자는 “건강과 맛을 함께 고려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저당 크림 라떼를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엔제린 밸런스 라인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뚜기, 식이섬유 더한 소용량 흑미밥 선보여

찰흑미 12.3%·식이섬유 5.5g 담아

오뚜기가 국산 찰흑미와 식이섬유를 넣은 130g 소용량 즉석밥을 선보였다. 오뚜기는 ‘식이섬유 플러스 흑미밥’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산 찰흑미 12.3%를 사용했으며, 수용성 식이섬유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더해 한 팩에 식이섬유 5.5g을 담았다. 신제품은 올해 초 선보인 ‘식이섬유 플러스 현미밥·보리밥’에 이은 제품이다. 130g 용량으로 일반 즉석밥보다 양을 줄였으며, 찰흑미의 풍미와 식감을 살렸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와 혈중 중성지방 개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다. 제품은 CLASS 100 수준의 클린룸에서 무균화 공정을 거쳐 생산하며, 고온·고압 가열과 증기취반을 적용한 2단 가열 공법을 사용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면세점, 정관장 ‘헬로키티 에디션’

에브리타임 로얄 2종으로 구성

롯데면세점이 정관장과 함께 글로벌 캐릭터 ‘헬로키티(Hello Kitty)’를 적용한 ‘에브리타임 로얄 헬로키티 에디션’을 국내 면세업체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에브리타임은 정관장의 홍삼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번 신제품은 산리오의 대표 캐릭터인 헬로키티를 패키지와 구성품에 적용했다. 헬로키티는 식음료(F&B), 패션,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상품은 롯데면세점과 정관장이 지난 6월 체결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에브리타임 로얄 헬로키티 에디션은 2종으로 구성됐다. ‘에브리타임 로얄 20포’ 상품에는 헬로키티 인형 키링 1개가 포함되며, ‘에브리타임 로얄 50포’ 상품에는 헬로키티 인형 키링과 러기지택이 각각 1개씩 포함된다. 상품은 롯데면세점 오



롯데면세점이 정관장과 함께 글로벌 인기 캐릭터 ‘헬로키티(Hello Kitty)’를 적용한 ‘에브리타임 로얄 헬로키티 에디션’을 국내 면세업체 단독으로 선보인다.

/롯데면세점

프라인 전점과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 판매한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K푸드에 대한 해외 소비자 관심에 맞춰 식품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선보인 BTS 협업 푸드 브랜드 ‘아리(ARIRI)’를 비롯해 세자커피, 이디야커피, 복호두, 자방, 무량수 등의 브랜드를 입점시켰다.

/김서현 기자 seoh@

CJ온스타일, 크리에이터 커머스 사업 확대

내달 코엑스서 CCFK 첫 개최

CJ온스타일이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를 연결하는 비즈니스형 행사를 열고 크리에이터 커머스 사업 확대에 나선다.

CJ온스타일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 2층 더플라츠홀에서 ‘크리에이터 커머스 페스티벌 코리아(Creator Commerce Festival Korea 2026-CCFK)’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CCFK는 크리에이터와 브랜드,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여해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행사다. 콘텐츠와 팬 소통에 초점을 맞춘 기존 크리에이터 행사에서 나아가 브랜드와 크리에이터의 매칭부터 상품 판매까지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에는 3일간 약 1만명의 크리에이터와 업계 관계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CJ온스타일이 K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선정한 100여개 브랜드도 참여한다.

유튜브·메타·틱톡 등 플랫폼 관계자들은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동향과 성장 전략을 공유한다. 이시배·애주가TV·잡PD·잇섬 등 크리에이터가 참여하는 토크쇼와 주연구·크리투스의 비즈니스 성장 강연, 팬밋팅 등도 진행된다.

CJ온스타일과 협업해 온 까사림과 드엘리사는 행사장에서 모바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크리에이터 콘텐츠와 상품 판매를 연계한 커머스 사례를 현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K-오가노이드, 亞 6개 국가와 글로벌 표준화 선도한다

亞 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창립회의 열고 기술·인프라 공유
韓 사무국 중심 규제·기준 주도
현장 난제 극복하고 실증 가속화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6개 국가가 차세대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오가노이드와 동물대체시험법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1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르메르디앙 명동 호텔에서 ‘아시아 오가노이드 컨소시엄(AOC)’ 창립 회의가 열렸다. 한국을 사무국으로 발족한 이번 아시아 협력체는 기술과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표준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는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AOC는 정부간 조약 기구가 아닌 민간 중심의 자발적·개방형 협력체로 운영되며 초기 사무국은 한국이 담당한다. 특히 지난해 8월 출범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이 도출한 핵심 과제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한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한국바이오 의약품협회가 주관하며 국내 대표 오가노



16일 서울 르메르디앙 명동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오가노이드 컨소시엄(AOC)’ 창립 회의에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박정태 부회장(앞 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이경진 상무(뒷 줄 왼쪽에서 첫 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이드 전문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초대 이사로 참여하는 가운데, ▲표준화·규제 불확실성 해소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생산·독성 평가·인공 지능 기술 공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상용화 난관 극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AOC 창립 배경과 비전을 발표한 한국 사무국의 고야(Koya) 비서관은 “글로벌 바이오 산업은 인간 생물학적 연관성이 높은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이제 핵심은 대체시험법이 도입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의 데이터와 근거가 향후 글로벌 표준을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발표자로 나선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오가노이드 혁신센터 사파그 워터스 교수는 오가노이드 시장 진입의 최대 장벽을 짚었다. 호주 바이오 업계 응답자의 65%가 오가노이드를 활용 중이나 76%가 ‘표준화 및 검증 부재’를 난제로 꼽았다는 분석이다.

워터스 교수는 “호주는 우수한 연구 모델을 갖췄지만 생태계는 과편화되어 있다”며 “향후 5년 간 기존 연구 시설과 산업계를 연결하는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의 트리 아스티 이스나리아니 의약품등록국장은 규제 당국 차원의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3R(대체·감소·최적화) 원칙에 따라 백신 품질 평가에서 토끼 및 생쥐 모델을 단구생성자극시험(MAT) 등 생체 외 대체시험으로 전면 전환하고 있다. 이스나리아니 국장은 “AOC를 통해 규제 기관의 연구계와 산업계 간 가교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분자세포생물학 연구소의 에이드리언 티오 디렉터는 체장, 간, 심장, 뇌 등 다양한 장기 오가노이드 모델과 인공 조립 기술 역량을 소개했다. 티오 디렉터는 “싱가포르 줄기세포학회, 한국, 호주 등이 함께 구성해 온 ‘재생 의학’을 위한 연대를 AOC 플랫폼과 연계

해 연구개발 영역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태국 내 3대 대형 의료센터 및 연구 인프라를 핵심 기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AOC를 통해 기술 검증과 실제적 상용화를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베트남은 선진 기술 보유국들과 함께 환자 맞춤형 암 치료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의 핵심 축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이경진 상무는 자사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표준화 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상무는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활용해 손상된 장기를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세포원”이라며 “이번 AOC 출범을 계기로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실증 데이터와 표준화 노하우를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해 K-오가노이드 기술이 글로벌 바이오 규제 과학의 새 기준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박정태 부회장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 온 바이오 평가 기술 및 규제 과학 시장에서 AOC가 아시아를 잇는 혁신 플랫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日 신약 허가

日, 단일 국가 중 세계 2위 뇌전증 시장
발작 빈도 감소 입증… 안전성 확인

SK바이오팜은 파트너사인 오노약품공업이 일본 후생노동성(MHLW)으로부터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일본 제품명: 에키스코푸리)’의 신약 허가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단일 국가 기준 세계 2위 규모의 뇌전증 시장으로, 약 100만 명의 뇌전증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약 30%는 기존 항발작제 치료에도 충분한 발작 조절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승인은 한국·중국·일본 성인 부분 발작 뇌전증 환자 중 기존 항발작제 치료에도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국가 임상 3상 결과를 기반

으로 이뤄졌다. 해당 임상에서 세노바메이트 부가 요법은 위약 대비 발작 빈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1차 평가지표를 충족했으며, 관리 가능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이번 일본 허가도 SK바이오팜은 한국·중국·일본 동북아 3개국에서 각 지역 파트너를 통해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신약 허가를 모두 확보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각각 2025년 11월과 12월 허가를 획득했으며, 중국에서는 올해 3월 첫 처방을 시작하며 공식 출시됐다.

SK바이오팜은 2020년 10월 오노약품공업과 일본 내 세노바메이트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계약상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향후 일본 내

세노바메이트 매출에 비례한 로열티도 수취할 예정이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함께 적응증 및 연령 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노약품공업이 청소년 및 성인 전신 강직-간대발작(PGTC)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소아 부분 발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도 진행 중이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일본은 뇌전증 치료 수요와 시장 규모 측면에서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시장”이라며 “이번 허가도 한국·중국·일본을 잇는 동북아 주요 시장 진입 기반이 완성된 만큼, 이제는 각 시장에서 실제 환자 처방으로 이어지는 상업화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지씨셀-퀀트헬스, AI로 세포치료제 개발

‘GCC2005’ 차기 임상시험 공동연구

지씨셀이 핵심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 개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임상 성공률 제고에 나선다.

지씨셀은 글로벌 AI 임상 시뮬레이션 기업 퀀트헬스와 신약 후보물질 ‘GCC2005’의 차기 임상시험 설계 최적화를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다국가 임상시험(MRCT)으로 진행할 GCC2005 임상 2상 프로토콜 완성도를 높이고 글로벌 개발 전략을 더욱 세밀하게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퀀트헬스가 독자 구축한 생물학적 지식 그래프와 실제 임상 데이터(RWD)를 학습한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활용한다. 환자군별 치료 반응 및 유효성 지표를 정밀 추정하고 타 치료제와 비교 분석하는

등 여러 임상 시나리오 평가가 이뤄진다.

지씨셀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환자 선별 기준, 평가변수 등 핵심 요소를 재정비해 임상 2상을 설계한다. AI 기술로 신약 개발 과정의 변수와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둔다. GCC2005는 제대혈 유래 NK세포로 제작한 동종유래 세포치료제다. T세포 림프종에서 높게 발현되는 CD5 단백질질을 표적하는 기전을 갖췄다. 계열 내 최초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임상 1a상 환자 모집을 완료한 뒤 국내 연구기관들과 임상 1b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원성용 지씨셀 대표는 “AI 시뮬레이션과 RWD를 접목해 임상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고도화하겠다”며 “다국가 등록 임상 2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보령-한국오가논, ‘아토젯’ 코프로모션

의료진에 의학적 정보 효과적 제공

㈜보령과 한국오가논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아토젯 정’의 국내 공동 영업·마케팅을 위한 코프로모션 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일부터 보령이 아토젯의 국내 유통을 담당해 온 데 이어, 양사의 협력 범위를 영업 및 마케팅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보령과 한국오가논은 이번 협력을 통해 아토젯에 대한 영업·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의료진에게 이상지질혈증 치료와 관련한 의학적 정보 및 제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아토젯은 증가하는 국내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LDL-C 치료 목표 달성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지질강하복합제 중 하나로, 총 4가지 용량의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환자의 위험도와 치료 목표에 따른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 중 유일하게 최대 용량 조합인 에제티미브 10mg·아토르바스타틴 80mg을 제공해 초고위험군 환자까지 아우르는 치료 옵션을 갖췄다.

최근에는 BETTER(Best Ezetimibe Treatment in Early-add on Response) 연구를 통해 아토르바스타틴 단독요법 대



‘아토젯 공동판매 및 유통계약 체결식’에서 (좌) 보령 김정균 대표(왼쪽)와 한국오가논 김소은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비 우수한 LDL-C 목표치 달성 효과를 확인하며 임상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세경 기자

스타벅스, 가을 케이크 신제품 3종 선보

오는 23일까지 ‘디저트 워크’ 행사

스타벅스 코리아가 가을 시즌을 맞아 케이크 신제품 3종을 출시하고 디저트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3일까지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을 대상으로 ‘디저트 워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제품은 ‘블랙 글레이즈드 부생카’, ‘브릴레 쿠키 치즈 케이크’, ‘더 멜론 오브사인 케이크’ (사진) 등 3종이다.

‘블랙 글레이즈드 부생카’는 가을 시즌 음료인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를 생크림 카스텔라로 재해석한 제품이다. 글레이즈드 크림과 모카 초코 크림을 사용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가을 시즌을 맞아 케이크 신제품 3종을 출시하고 디저트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3일까지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을 대상으로 ‘디저트 워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제품은 ‘블랙 글레이즈드 부생카’, ‘브릴레 쿠키 치즈 케이크’, ‘더 멜론 오브사인 케이크’는 멜론과 사인머스켓을 활용했다. 프로모션 기간 리워드 회원이 오후 2시 이후 제조 음료와 케이크를 함께 구매하면 기존 혜택에 더해 별 3개를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다. 신제품을 포함한 모든 케이크에 적용되며 생수·병 음료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그네슘, 활성비타민 B군
비타민 E, 감마오리자놀까지

맥스로 콕! 약으로 콕!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 신경통완화 · 육체피로 · 체력저하

마그비 맥스[®]

연질캡슐



LX하우시스, KS-CQI 6년 연속 우수기업 선정

LX하우시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한국품질 플랫폼질지수(KS-CQI)' 조사에서 올해로 6년 연속 인테리어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KS-CQI 조사에서 인테리어 부문이 신설된 2021년 이후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LX하우시스가 유일하다. /LX하우시스



에쓰오일, 저소득 가정에 송편·선물꾸러미 전달

에쓰오일(S-OIL)이 추석을 앞두고 본사 인근 저소득 가정에 5000만원 상당의 송편과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갔다.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가 마포구 본사 사옥에서 사랑의 송편나누기 행사 참여자들과 함께 송편을 만들고 있다. /에쓰오일

2026 JW성천상에 김용민 교수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2026 JW성천상' 수상자로 김용민 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사진)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JW성천상은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 창업자 성천(星泉) 이기석 사장의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12년 제정한 상으로, 매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인을 발굴해 그 가치를 조명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광주은행, 추석 맞아 지역방위사단에 위문금

광주은행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단에 장병위문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지역방위사단인 제31보병사단을 방문해 위문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일선 광주은행 은행장(오른쪽)과 김도열 제31보병사단 사단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더본코리아

가맹점 물품대금 카드결제 도입

더본코리아가 추석을 앞두고 가맹점주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품대금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더본코리아는 전 브랜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발주 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드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

이번 시스템은 가맹점주가 기존 물품 주문관리시스템에 결제전용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플랫폼이나 주문 시스템을 추가로 이용하지 않고 기존 시스템에서 결제 방식을 카드로 선택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KT, 스타트업과 AI 협력... 정재현 CEO 직접 소통

‘스케치 데이’ 열고 애로사항 청취 혁신기업 500개 육성 목표

정재현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국내 스타트업들의 고충을 직접 챙기며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SK텔레콤은 16일 정재현 CEO가 사내 구성원 및 스타트업 대표들과 ‘스케치 데이’를 열고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스타트업 육성 및 협업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SK텔레콤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스타트업은 협업 현장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방안과 통찰을 나눴다.

드론 기반 AI 인프라·안전진단 솔루션을 보유한 시에라베이스의 김송현



정재현 SK텔레콤 CEO(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사내 구성원들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16일 SKT 타워에서 열린 스케치 데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대표는 “기존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 수행하던 통신탑 안전 점검을 AI 기반으로 자동화하기 위해 SKT와 소형 자율주행 드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술 고도화는 물론 실제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현 CEO는 “스타트업은 SKT가 AI 시대 새로운 사업 기회와 성공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갈 중요한 파트너”

KT, 한미 국가연구망 400Gbps로 증설

국제 공동연구 지원

KT가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NCP(New Cross Pacific) 해저케이블에 국가과학기술연구망 회선을 증설했다. 한·미 연구기관 간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빨라져 국제 공동연구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KT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함께 400Gbps급 단일 국제전용회선을 개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한 회선은 KISTI가 운영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망의 국제백본망으로, 대전 본원과 미국 시카고를

연결한다. 미국 시카고는 북미·유럽 연구 네트워크가 집중된 곳이다.

이에 한국과 미국을 잇는 구간에서 운용하던 국가과학기술연구망의 대역폭이 기존 100Gbps 대비 4배 확대됐다. 글로벌 공동연구에 필요한 대규모 연구 데이터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대용량 연구데이터의 초고속 전송 ▲국가연구망의 글로벌 연결성 강화 ▲국제 공동연구 지원 확대 ▲AI·거대과학·융합연구분야의 데이터 활용성 향상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민선 기자 msjo@

iM금융, 청년사회복지사에 ‘힐링’ 선물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방문

iM금융이 청년사회복지사 복리증진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iM사회공헌재단은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청년사회복지사 복리증진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취약계층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청년사회복지사를 격려하고자 기획됐다.

iM뱅크는 후원금을 활용해 청년사회복지사들에게 관광 명소 방문 및 음악회 관람 등 힐링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iM뱅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



신용필 iM금융지주 그룹가치경영총괄 전무(왼쪽)와 이한성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M금융

해 지역 청년사회복지사들을 응원하고,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과 기업,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중진공, 카자흐와 中企 해외진출 지원

기관·지자체 3곳과 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카자흐스탄과 손잡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돕는다.

중진공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카자흐스탄 기관·지자체와 ‘양국 중소기업 육성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

혔다.

중진공은 이 자리에서 카자흐스탄 수출지원기관인 카즈트레이드(QazTrade) 및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개발펀드(DAMU), 알마티시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계기로 중진공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지원하고 이를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SK, AI 해커톤으로 현장 AX 확산

‘2026 SK AI 해커톤’ 성료 39개 계열사 271개 팀 참가

SK그룹이 구성원들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커톤을 열며 그룹 차원의 AX(AI Transformation·AI 기반 전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AI 인프라와 제조 현장을 잇는 AX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구성원 중심의 AI 활용 확산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SK그룹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SK AI 해커톤’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SKAI 해커톤은 그룹 교육 플랫폼 마이써니(mySUNI)가 2021년부터 진행해온 행사로, 그룹 내 다양한 현안을 구성원들

이 AI를 활용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행사는 AI 솔루션 리그와 AI 아이디어 리그로 나뉘어 진행됐다. AI 솔루션 리그에는 39개 계열사 672명이 참여해 271개 팀을 꾸렸다. 현장 문제나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한 뒤 AI를 활용해 실제 작동하는 서비스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AI 아이디어 리그에서는 업무에 이미 적용하고 있는 AI 활용 사례 735건이 접수됐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발된 10개 팀은 지난 14~15일 1박2일간 프로젝트를 고도화하는 결선을 진행했다. 외부 AI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각자 15억원 규모의 가상투자 크레딧을 활용해 유망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양성운 기자 ysw@

인하대, 제17대 최기영 총장 취임

2030년까지 4년 임기 수행

인하대학교가 항공우주공학 분야 전문가인 최기영 박사를 신임 총장으로 맞이했다.

인하대는 인천 미추홀구 본관 하나홀에서 제17대 최기영 총장 취임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성용락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인사와 학내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총장은 서울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스탠퍼드대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000년 인하대 교수로 부임했다. 이후 국제처장,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행정 역량을 쌓았다. 한국항공우주학회 정채위원장 및



16일 인하대 본관 2층 하나홀에서 열린 제17대 총장 취임식에서 최기영 총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인하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최기영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이 축적해 온 오랜 전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교육·연구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최 총장은 오는 2030년 8월 말까지 4년 동안 인하대를 이끌게 된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인사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김명중

부음 ▲김영실 씨 별세,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씨 모친상=16일 오전 6시30분, 전남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18일 오전 8시30분. 062-521-4444

수입콩과 두부 이야기



김 승 호 의
시 선

농민들을 살리려다 중소기업들이 죽게 생겼다.

수입콩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국민 음식’ 두부 이야기다.

두부는 콩, 그중에서도 대두로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토종콩으로 두부를 만들기도 한다. 대기업 등 일부에서 나오는 ‘국산 콩 두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두부는 수입콩으로 만든다. 가격 때문이다. kg당 국산콩은 5000원대, 수입콩은 1400원대다. 이 가격만 놓고보면 국산콩 두부가 수입콩 두부보다 서너배 비싸다.

브랜드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들은 국산콩 두부를 만든다해도 팔기가 쉽지 않다. 가격이 싸야 그나마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콩에 100% 의존하는 이유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수입콩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국가가 수입콩을 통제하고 있

기 때문이다. 모자란 수입콩을 개별 기업들이 마음대로 수입할 수도 없다. 관세가 무려 487%에 이른다.

두부를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수입콩을 통제하는)이런 나라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국가 개입은 없다. 기업이나 관련 단체가 해외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수입콩을 조달한다.

우리는 다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수입 식용 대두 물량은 22만3899톤(t)이다. WTO 물량을 통해 16만8332t, FTA 물량을 통해 5만5567t이 들어온다. 특히 전체 수입 허용 물량 가운데 66.7%인 14만9350t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국영무역이란 이름으로 수입한다.

2024년의 경우 식용대두 총 수입 허용 물량은 25만8213t이었다. 이 정도가 중소기업에 매년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다. 2024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3만t 가량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은 내일 (두부 제조에)필요한 물량을 오늘 주문하는 구조다. 수입 물량을 늘리지 않으면 중소기업 두부공장들은 10월부터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 또다른 두부

공장 사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수입콩을 통제하고 물량을 조절하는 것은 국내 콩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수입콩을 늘리면 국산콩 자급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국산콩을 kg당 1600원에 공급해줄테니 수입콩과 섞어서 두부를 만들라고 중소기업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이 역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한 제조사 대표는 “크기가 수입콩은 5mm, 국산콩은 8mm다. 크기가 달라 물에 불리는 시간도 차이가 난다. 두부를 만들땐 콩을 많이 불려도, 적게 불려도 안된다. 그런데 수입과 국산을 섞어 쓰란다. 두부 제조 과정에서 혼합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두부 제조 중소기업들은 지난 9일 언론을 향해 이같은 애로를 가감없이 토로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여기에 반응해 수입콩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농민도 살리고 중소기업도 살릴 수 있는 해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bada@metroseoul.co.kr

‘동물농장’과 삼성 노노갈등



기자 수첩

구 남 영
(산업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은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일으킨 혁명이 내부의 권력과 이해관계 다툼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그린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를 내세웠던 처음의 명분은 점차 흐려지고 내부 갈등이 그 자리를 채운다. 삼성전자 노조의 최근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간 욕설과 폭로가 오가는 데 이어 엄벌처를 요구하는 탄원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 노조 간 갈등은 이미 선을 넘고 있다. 초기업노조와 동맹노조 사이에서는 욕설과 위협성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고 법적 대응까지 거론됐다. 동맹 노조 측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에 1만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초기업노조는 최 위원장 등

의 선처를 요구하며 DS(반도체)부문 임직원 3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맞벌 탄원에 나섰다.

노조 간 갈등에 더해 초기업노조 내부에서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부위원장과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하는 한편 조합원 가입 자격을 DS부문 근로자로 제한하는 규약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DX부문 조합원들은 노조에서 빠지게 된다.

이처럼 노노갈등이 격화하면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도 더욱 싸늘해질 수 있다. 지난 4월 리얼미터가 실시한 ‘삼성전자 파업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3%가 노조의 파업을 ‘무리한 요구와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물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역할이다. 다만 높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며 회사와 맞선 데 이어 노조끼리 서로를 겨누는 모습까지 반복된다면 사회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워진다.

노노갈등을 둘러싼 우려는 삼성전자 내부

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 위원장은 최근 “노동 인권은 노사 관계뿐 아니라 노노 관계에서도 반드시 준수돼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준법감시 위원회도 노노갈등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노조의 힘은 요구 수준이나 목소리의 크기뿐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느냐만큼 왜 그런 요구가 필요한지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회사에는 더 많은 보상과 책임을 요구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욕설과 폭로, 탄원전으로 서로를 겨누는 노조가 내세우는 요구의 설득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동물농장’이 보여준 것도 처음의 목적을 잊고 내부의 권력과 이해관계에 매몰된 조직의 모습이었다. 삼성전자 노조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다. 누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갈지, 누가 내부 싸움에서 이길지를 따지기 전에 지금의 싸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이다.

/koogija_tea@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7일 (음 8월 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귀하를 돕는 큰 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60년생 과감한 변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72년생 결과에 연연하니 실력 발휘가 안됩니다. 84년생 분주하고 소득이 없습니다.



49년생 종교가 있다면 기도가 최선입니다. 61년생 노력하며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73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85년생 매매는 미루고 소송은 당기세요.



50년생 이성을 잃지 말고 상황을 살펴보세요. 62년생 육신이 고달프니 이 내 몸이 외롭습니다. 74년생 노력하면 바라던 것을 얻을 것입니다. 86년생 자녀 문제로 고민하게 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51년생 냉철한 이성으로 오늘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3년생 사업의 확장이나 투자는 금물입니다. 75년생 천생배필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87년생 돈이 막히는 날입니다.



52년생 미리 대비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64년생 심기가 편치 못합니다. 76년생 서쪽이 길방이나 움직임에 참고하세요. 88년생 지나친 신경은 건강을 해치니 여유를 가지세요.



53년생 소리대로 진행하세요. 65년생 심장과 소화기에 병이 들 수 있습니다. 77년생 일을 추진하기 앞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89년생 마음이 중심이 없고 흔들림이 많은 날입니다.



54년생 매매는 이루어지나 큰 이익은 없겠습니다. 66년생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78년생 주위의 유혹이 많은 날입니다. 90년생 젊은 날의 쾌락은 잠시뿐임을 잊지 마세요.



55년생 심고 가꾼 곡식이 알찬 열매를 보게 됩니다. 67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순리대로 처신하세요. 79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습니다. 91년생 마음이 잘 맞는 주위 사람과 상의하세요.



56년생 작은 도움이 큰 결실을 보게 됩니다. 68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80년생 현실적인 소망을 먼저 이루도록 하세요. 92년생 몸의 작은 상처라도 정성껏 치료해야 합니다.



57년생 다 끝난 일이 다시 불거집니다. 69년생 시작이 반이니 주저하지 말고 움직이세요. 81년생 친구들과의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어 보도록 하세요. 93년생 모든 일에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58년생 긴 안목을 가지도록 하세요. 70년생 외출은 삼가고 일찍 귀가하세요. 82년생 누명이나 사기를 조심하세요. 94년생 당신을 신뢰하는 이가 더 많으니 좌절하지 마세요.



59년생 금전운은 길하나 곧 나가게 됩니다. 71년생 가까운 친인척을 만나보세요. 83년생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95년생 근신자중의 날이니 말과 행동을 조심하세요.



김상회의四季

첨단기업의 불교 공부

세계 최고의 IT기업 구글 직원들은 회사에서 명상을 배운다. 종일 컴퓨터와 씨름하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한다. 구글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명상과 마음챙김을 직원 교육에 활용해왔다. 이 프로그램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불교와 만나게 된다. 종교 차원에서 불교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 불교에서 오랫동안 수행해온 명상과 마음챙김이라는 방법을 현대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한 것이다. 구글의 엔지니어들은 왜 불교의 명상에 관심을 가졌을까. 마음을 다루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수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동료들과 협업하며 갈등을 겪어야 한다. 일하는 과정에서 걱정하고 화내고 비교하고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한다. 동료의 한마디에 마음을 상하고 상사와 충돌하는 것도 여느 회사와 다르지 않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에 쫓긴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불교의 지혜라고 봤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을 관찰해왔다. 사람이 왜 괴로운지, 왜 화를 내는지, 왜 욕심을 부리는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 살펴봤다.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명상 수행으로 한 발 떨어져 마음을 바라보면 자기 객관화가 되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불안한 마음이 편안해지고 분노가 줄어들며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효과가 나타난다. 불교를 종교로만 본다면 절에 가서 잘하고 불경을 읽는 것이나 종교적 차원을 넘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오랜 지혜가 담겨 있다. 시대는 엄청나게 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비교하고, 걱정한다. 불교의 지혜는 여전히 유용하고 귀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97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0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N수생 수능 강세 여전... 국어 13.3점·수학 12.8점 앞서

2026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수학 상위권 격차 5년이래 최소
서울 국어·수학 평균 전국 최고
최하위 지역과 점수 10점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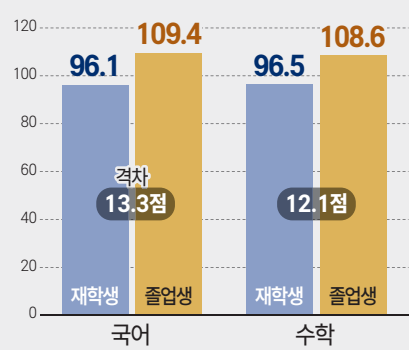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졸업생의 국어 표준점수 평균이 재학생보다 13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에서도 12점 넘는 격차가 벌어지는 등 졸업생이 국어·수학·영어 모든 영역의 상위등급 비율에서 재학생을 앞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은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평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국어·수학·영어 모든 영역에서 1·2등급 비율도 가장 높았다.

◆ 졸업생, 재학생보다 국어 +13.3점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6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전체 응시자는 49만3896명으로 전년도 46만3486명보다 3만410명 증가했다.

수능 표준점수 평균 비교

2026학년도 수능,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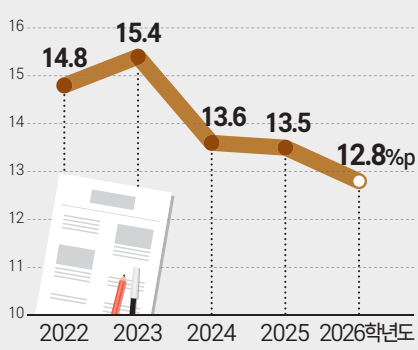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같은 기간 34.7%에서 32.6%로 2.1%포인트(p) 감소했지만, 성적에서는 재학생을 크게 앞섰다.

특히 국어에서 격차가 컸다.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졸업생이 109.4점으로 재학생(96.1점)보다 13.3점 높았다. 졸업생의 국어 1등급 비율은 8.0%, 2등급 비율은 10.9%로 1·2등급을 합하면 18.9%였다. 재학생은 각각 3.3%, 4.8%로 1·2등급 비

재학·졸업생 수학 격차

2026학년도 수능 2등급 이내 비율 격차, 단위: %p



율이 8.1%에 그쳤다.

수학에서도 졸업생 강세가 이어졌다. 졸업생의 표준점수 평균은 재학생보다 12점 이상 높았다. 평가원 분석 결과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평균은 모두 졸업생이 가장 높았으며, 국어·수학뿐 아니라 절대평가인 영어에서도 졸업생의 1·2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대로 하위권인 8·9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이 가장 낮았다.

다만 졸업생과 재학생의 상위권 성적 격차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좁혀진 것으로 분석됐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에서 2등급 이내 비율은 수학이 재학생 9.5%, 졸업생 22.3%로 12.8%p 차이가 났다. 이 격차는 2022학년도 14.8%p, 2023학년도 15.4%p, 2024학년도 13.6%p, 2025학년도 13.5%p에서 올해 12.8%p로 최근 5년 중 가장 작아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와 정시에서 수능 성적이 우수한 고3 학생들이 상당수 합격하면서 재수로 넘어오는 학생들의 성적대가 과거보다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울 국어·수학 평균 전국 최고

지역별 성적 차이도 뚜렷했다.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재학생 성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102.4점, 수학은 102.3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모두 가장 높았다. 반면 국어 평균이 가장 낮은 경남은 91.7점으로 서울과 10.7점 차이가 났다. 수학에서는 강원이 92.1점으로 가장 낮아 서울과의 격차가

10.2점에 달했다.

상위등급에서도 서울의 강세가 나타났다. 서울의 국어 1등급 비율은 6.0%, 2등급은 7.7%로 1·2등급을 합해 13.7%였다. 국어뿐 아니라 수학과 영어에서도 서울의 1·2등급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학교 설립 주체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평균은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높았고, 국어·수학·영어의 1·2등급 비율 역시 모두 사립학교가 높았다.

성별로는 영역에 따라 차이가 엇갈렸다.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여학생이 100.5점으로 남학생 99.5점보다 1점 높았지만, 수학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이 더 높았다. 1·2등급 비율은 국어와 수학에서 남학생이, 영어에서는 여학생이 높았다. 영어 1등급 비율은 남녀 모두 3.1%였지만 2등급 비율은 여학생이 14.5%로 남학생 14.2%보다 높았다.

/이현진 기자·김수정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청파동1가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

서울시, 25층·1280가구 조성

서울시는 용산구 청파동1가 97의35 일대 재개발 신통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안에는 대상지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7층 이하로 관리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로 중층 주택이 들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의 비율) 250% 이하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물레이션상 높이는 최고 25층 내외, 주택 규모는 약 1280가구다. 높이와 가구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다.

◆ 청파2구역과 공원·도로 연계

시는 지난해 4월 후보지를 선정할 때 포함했던 숙명여대 소유 필지를 제외하고 종교시설과 기존 도로를 포함해 불규칙한

구역계를 조정했다. 인접한 청파2구역 신속통합기획에서 계획한 공원과 연결되는 통합 공원을 만들고 대상지 남쪽에도 공원을 배치한다.

공원과 함께 차량 접근로도 주변 정비사업과 연결한다. 청파1·2구역이 계획한 도로와 대상지 진출입로를 잇고, 학교와 종교시설 사이 접근로를 연결한다. 주변도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넓힌다.

단지 중앙도로는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합 조성할 수 있는 입체 구조로 만든다. 차량 진출입구 2곳은 지형을 고려해 분산 배치한다.

◆ 숙명여대·청파초 잇는 보행망

보행로는 주변의 보도와 공공보행통로에 이어 숙명여대와 청파초, 숙대입구역까지 연결한다.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아 약 40m에 이르는 높이 차를 고려해 보행로 경사를 완화하고 엘리베이터 등 수직 이동시설을 설치한다.

/이현진 기자

수시 원서접수 장애 구제 250건 잠정 가능

약 1200명 신청... 형평성 문제 검토
최교진 교육부 장관 “무거운 책임감”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구제를 신청한 1200여명 가운데 잠정적으로 구제가 가능한 사례가 250여건으로 파악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 “(오늘 오전 10시 기준) 1200명 정도가 구제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잠정적으로 구제 가능한 것이 한 250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번 원서접수 장애와 관련한 교육부의 책임도 인정했다. 최 장관은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발생과 대응 과정의 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차적인 책임은 원서접수 대행업체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에 있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이 업무는 대학으로부터 대학을 맡은 회사와 대교협 사이의 문제”라면서도 “이에 대해 감독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교육부의 책임이 없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일 자체의 장애 상황이나 대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업체나 대교협, 대학에 있다”고 강조했다.

접수 마감시간이 연장된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연장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이 의원이 “연장하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나온 것 아니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매뉴얼에 따라서 이미 그렇게 조치를 했고 대교협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그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매뉴얼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자체와 장애 이후 대응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쟁률이 공개된 뒤 이뤄진 접수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잘 살펴보고 있다”며 추가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17일 (木)
음력: 8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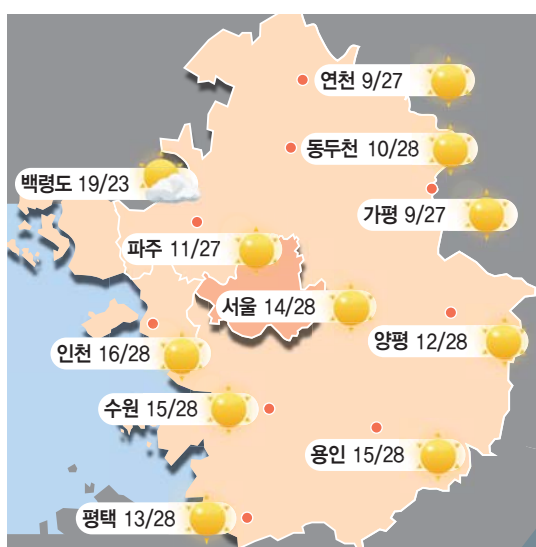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14 ~ 2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GTX-C 양주 덕정~수원 구간 실착공

86.6km 규모... 총사업비 4.9조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양주 덕정역~수원역 구간이 15일 실착공에 들어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수원역에서 열린 'GTX-C노선 착공 홍보관 개관 행사'에 참석해 "GTX-C가 착기에 공사를 마치고 개통되면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약 25분, 양주에서 삼성역까지 약 30분이 소요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

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재가 이뤄져 실착공하게 됐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GTX-C노선은 2024년 1월 착공식 이후 총사업비 증액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절차 등을 거쳐 총사업비 조정 문제가 정리되면서 사업 정상화의 기반이 마련됐다. 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역·삼성역·양재역 등을 거쳐 수원역과 안산 상록수역까지 연결하는 86.6

km 규모로, 총사업비는 4조9272억원이다.

경기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도지사와 행정2부지사, 실무진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특히 추 지사는 지난 7월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 신규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시군과 국가철도공단,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인허가·보상 등 주요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앞으로도 행정 지원을 통해 GTX-C노선의 적기 개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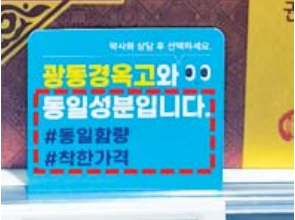
메트로 한줄뉴스



▲감사원 “尹, ‘대왕고래’ 시추 임기내 단축 지시...액트지오 선정절차 부당”
▲외국인 난재 사망 5년 새 369명...“81%가 건설·제조업”
/사진 뉴시스

▲‘가족 조합’ 김승원·‘12억 관사’ 추미애, 경찰 수사 본격화
▲아들 불법촬영 알자 휴대폰 파손한 현직 경찰, 정직 처분

▲“매출 580조인데 과징금 11조”...경실련, 소비자 집단소송법 촉구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연간 54.8조...GDP 2.14% 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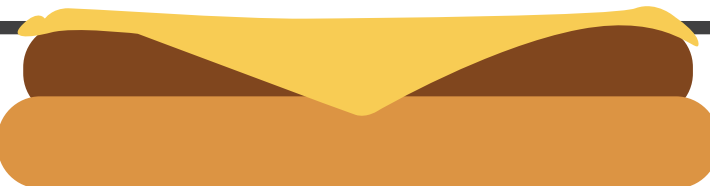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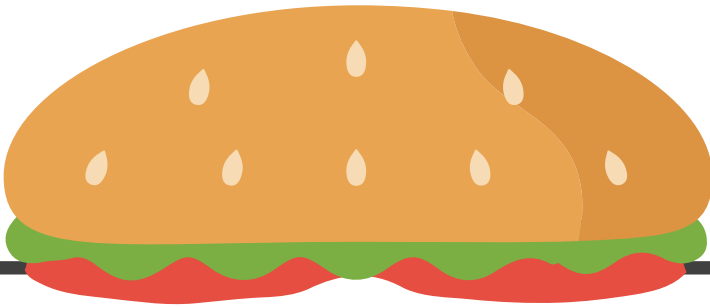


약국가 경쟁 과열
불법 비교광고에
소비자 혼란
L1

metro®

Life

K-오가노이드
아시아 6개국과
글로벌 표준화 선도
L2



얇아진 지갑에도, 두툼하게 한 입... 거품 뺀 ‘버거의 진수’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

외식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되면서 한 끼 식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합리적인 가격과 풍성한 양을 동시에 잡은 가성비 메뉴가 외식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신세계푸드의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노브랜드 버거’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대표 가성비 메뉴군인 ‘어메이징’ 시리즈를 앞세워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 ‘Why pay more?’ 슬로건 바탕... ‘품질·가격’ 두 토끼 잡다

노브랜드 버거는 2019년 8월 “Why pay more?(왜 더 내?)”라는 슬로건을 걸고 버거 프랜차이즈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론칭 이래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부담 없는 한 끼 식사로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노브랜드 버거의 대표 메뉴군인 ‘어메이징’ 시리즈는 소비자의 니즈를 세분화하여 ‘절대적 가성비’와 ‘상대적 가성비’를 동시에 제시한 전략이 주효했다.

2700원이라는 초저가를 자랑하는 ‘어메이징 불고기’는 가성비의 본질과 불고기 본연의 맛에 집중했다. 단순한 판촉용 할인에 그치지 않고 원재료 공동구매, 메뉴 설계 단계에서의 원가 재정비, 연구개발 등 전 과정에서 원가를 개선해 완성했다.

그리고 ‘어메이징 더블’ 3종(어메이징 더블, 어메이징 더블 치즈, 어메이징 더블 살사)은 4000원대 가격에 푸짐한 양과 품질을 갖춘 라인업이다. 업계 타사 더블 패티 버거 대비 고기 중량을 약 30% 늘리면서도 가격은 약 30% 낮췄다.

이 중 ‘어메이징 더블 치즈’는 두 장의 직화 패티에 더블 치즈와 체다치즈 소스를 더해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의 풍성한 맛을 완성, ‘어메이징 더블’ 3종 중 판매 순위 1위에 올랐다.

◆ 출시 1년 3개월 만에 380만 개 돌파... 독보적 흥행

노브랜드 버거가 지난해 5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인 ‘어메이징’ 시리즈 4종의 누적 판매량은 출시 1년 3개월 만에 380만 개를 돌파했다.

어메이징 더블 3종은 월 판매량



노브랜드 버거 직원들이 버거를 만들어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노브랜드 버거

부담 없는 한 끼 식사로 시장 입지 다져
재료 공동구매, 공정개선 등 원가절감
고기패티 중량 늘리고, 가격 30% 낮춰
어메이징 시리즈 누적판매 380만개
매월 말 대표메뉴 초저가 프로모션도
콤팩트 매장 도입으로 가맹사업 속도

노브랜드 버거
‘어메이징 더블’
3종 라인업



30만 개를 돌파하며 점심값 부담이 커진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메이징 불고기의 경우 지난 2월 출시 이후 단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80만 개를 넘어서며 초가성비 메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입증했다.

노브랜드 버거는 이 같은 판매 증가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가격 부담을 체감하는 고객들이 늘어난 가운데, 합리적인 가격에 든든한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강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단순히 낮은 가격을 앞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메뉴별 가격대와 고객 니즈를 세분화해 ‘절대적 가성비’와 ‘상대적 가성비’를 함께 제시한 점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가격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흥행에 힘을 더했다. 노브랜드 버거는 지난 3월부터 매월 마지막 날 ‘어메이징 NBB 데이’를 열고, 선착순 50명에게 ‘어메이징 불고기’를 1000원, ‘어메이징 더블’을 1500원에 판매한다. 행사 당일 주요 매장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되며, 준비된 물량이 시작 5분 만에 소진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노브랜드 버거 관계자는 “고물가로 외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게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가성비 버거 메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과 혜택을 통해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소자본 창업 모델 ‘콤팩트 매장’으로 출점 가속화

노브랜드 버거는 메뉴의 히트에 힘입어 매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창업 비용의 60% 수준으로 낮춘 소자본 창업 모델 ‘콤팩트 매장’을 선보이며 가맹 사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약 15평 규모의 콤팩트 매장은 인테리어와 마감재를 간소화하고 공사매뉴얼을 단순화해 초기 투자 부담을 대폭 낮췄다. 동시에 조리 동선 최적화와 평당 좌석 수 약 35% 확대로 매장 공간 활용도를 높여, 작은 매장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노브랜드 버거는 예비 창업자 및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운영 효율 개선과 식재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맹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 ‘프로축구 입단 비리’ 임종현 안산FC 전 감독, 2심서도 징역 1년
▲ ‘중동 강호’ 요르단 잡은 남자 농구, 이란과 준결승전
/사진 뉴시스

▲ ‘4번 지명타자’ 이정후, 두 경기 연속 안타... 시즌 30번째 2루타 ‘황’
▲ 개막 전부터 날씨·운영 ‘난항’... 바람 잘 날 없는 아시안게임

▲ ‘3경기 연속 무안타’ 김하성, 컵스전 결장... ‘홀런 3방’ 애틀랜타, 2연패 탈출
▲ 최두호, 8년 만에 UFC 랭킹 재진입 도전... ‘핏불, 판정까지 못 버틸 것’

SAMSUNG

The all-new
Galaxy Z Fold8 Ultra | Fold8 | Flip8
Galaxy AI ✨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좌측부터 갤럭시 Z 플립8,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갤럭시 Z 폴드8입니다.
특정 AI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계정 로그인에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